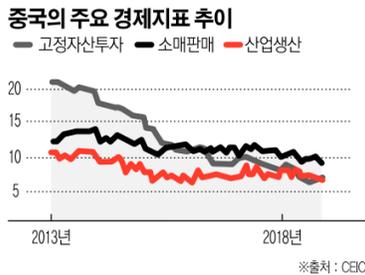


황창규 다보스포럼 IBC 초청...한국 기업인 최초 13 | **성상운 대표 "바이오 신약 플랫폼 기업 도약" 15**

〈전미경제학회〉

## “中, 세계경제 ‘리스크 블랙박스’... 최악을 준비하라”

‘中 작년 1.67% 성장’ 보도 충격  
獨·日 등 선진 5개국도 침체기 돌입  
글로벌 경기 불안감 더욱 고조



전미경제학회 “위기 촉매제로 작용  
한국 등 연계된 국가 파장 클 듯”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애플이 이른바 ‘차이나 쇼크’로 실적 전망치를 크게 낮추면서 어렵게 했던 중국발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거세지고 있다.

증가율을 1.67%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9월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전년 대비 6.7%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다. 폭로를 한 인물은 상송즈오 인민대 교수로 크게 알려진 경제학자 아니다. 최근 그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12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67%라는 수치가 신빙성이 없다며 논평을 거절했다.

의혹이 계속됐음에도 이 정도로 낮은 추정치가 등장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상 교수 주장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에서 빠르게 삭제되고 있지만, 중국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8면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중국 인민대학의 정부 산하 비밀 연구그룹이 중국의 2018년 국내총생산(GDP

그러나 중국이 GDP 수치를 부풀린다는

특히 이러한 수치는 2일 애플이 “차이나 쇼크”로 4분기 매출이 10%나 급감했다”고 실토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애플은 2019 회계연도 1분기(작년 10

~12월) 매출을 840억 달러(약 94조7100억 원)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 890억~930억 달러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애플이 실적 전망을 낮춘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에서 아이폰, 맥, 아이패드 전반에 걸쳐 매출이 하락했다”며 “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 조짐은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계 경기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 5개국은 지난해 3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에 돌입했다. 미국 듀크대가 미국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올해 말부터 경기 후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82%가 “2020년에야 이러한 침체

기가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4일부터 이틀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도 전·현직 연방준비제도(Fed)의 장과 경제 석학들이 미국 경기 둔화보다는 ‘차이나 리스크’가 올해 ‘위험의 트리거(방아쇠)’라고 입을 모았다. 총 500개 안팎의 세션 가운데 중국 관련 보고서만 110건에 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했던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문제는 ‘블랙박스’처럼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며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계된 국가들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벤 배낭 전 연준 의장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그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며 위기 예측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 삼성·현대차·LG·SK 내일 개막 CES 총출동

세계 최대 가전쇼' 4500개 기업 참여

가전·IT·자동차 등 혁신 산업 기술이 총 망라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이 전시회에는 글로벌 벤처기업 1200여 곳을 포함해 4500여 기업이 참여하고, 150여 국가에서 약 18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10면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가전·IT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전자·LG전자가 대표적으로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90인치대 초대형 8K QLED TV와 마이크로 LED TV 신제품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고, LG전자는 올레드 TV에 최고 해상도를 적용한 88인치 8K 올레드 TV를 공개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CES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전시 테마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들도 속속 CES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IT 기술과 자동차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선보일 전망이다. 기아차는 운전자와 자동차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 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대표주자로 내세웠다.

네이버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CES에도 전장을 내민다. 이번 전시회에서 네이버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최첨단 미래 기술들을 선보인다.

SK그룹은 4개 계열사(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하이닉스·SKC)가 공동 부스를 꾸려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센스·TCL 등 중국 기업들은 자국과 ‘무역 전쟁’으로 날을 세운 미국이 개최하는 CES에서 어떤 기술력을 선보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달을 품은 해, 그리고 까마귀

새해 첫 부분일식이 진행될 6일 오전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까마귀 뒤로 달을 품은 해가 비치고 있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으로, 태양 일부분이 달에 가려지는 부분일식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서 관측됐다. 오른쪽 사진은 태양필터를 사용해 촬영한 일식 전 과정. 연합뉴스

## 작년 구직급여 6조4522억원

전년보다 29% 늘어 ‘사상최대’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해 6조 원 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조4522억 원으로 전년(5조226억 원)보다 1조4296억 원(28.5%) 증가했다. 한 해 구직급여액이 6조 원을 넘는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고용이 악화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지난 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14.8%)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도 8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 명(13.5%) 늘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승진’ 입맛대로

호봉제 없애고 ‘승급특례’ 신설  
인사적체 해소·조직활성화 차원  
“내부 단속용 인사권 개정” 논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원 인사와 관련해 호봉제 승진제를 없애고, ‘승진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개개인의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경영진의 입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악습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중앙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주요 요직에 심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관련기사 9면  
6일 본지가 입수한 지난달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 안건을 보면 기존의 일반직 1급과 2급의 등급을 통합하고 단일 호봉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현재 중앙회는 4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4급은 초임·대리·과장, 3급은 선임 과장·차장, 2급은 팀장, 1급은 본부장에 해당한다.

그간 중앙회는 급수별로 호봉에 따라 진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무진급의 세부 등급은 사라진다. 1급의 당연 승직 비율은 20%에서 0%로, 2급 역시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호봉제’를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대신 1급 부서장과 지역본부장 직책자의 호봉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급과 2급 중 직책 미부여

자에 대해서 ‘승급 특례’를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위 해제 사유도 신설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차원이지만 실제로는 인사권자의 ‘입김’이 더 세졌다는 평가가 짙다. 인사평가시스템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사권 조정으로 겨냥되는 곳은 ‘지역본부장’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본부의 본부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지역본부’의 경우 중앙회의 핵심 부서로 꼽힌다. 지역별로 각 금고에 대한 검사권을 지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내부 관계자는 “중앙회 이사로 가기 위해선 지역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핵심 권력 라인으로 대개 회장의 입맛대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이사장들도 지역본부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당연 승직 비율 조정

급수	기존	변경
1급(본부장급)	20%	0%
2급(팀장급)	30%	20%

직급 통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1-1급	1급	2-1급	2급
1-2급		2-2급	

※출처: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본부장’이 누가 되느냐는 중앙회를 포함해 금고 전반에서의 관심사다.

중앙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는 시스템화된 인사관리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승진안 되는 사람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하고 소수의 사내 정치 인력들에 의한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이번 이사회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객관적 기자 jinsan@

〈셀트리온그룹 회장〉

# 서정진 “글로벌 직판 시스템 구축… 내년 말 은퇴”

미래 대비 25개 파이프라인 확보  
국내 제약사들 해외 진출에 도움  
생산기지 다원화·원가절감 추진  
내년 말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그룹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새로운 도전장을 던졌다. 바이오시밀러 직판 시스템을 구축해 셀트리온을 개발과 생산은 물론 유통까지 가능한 종합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영업을 시도하면서 직접 유통이 가능할 것이란 확신을 얻었으며, 올해 본격적인 직판 시스템 구축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직판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나라들에 대한 파트너사 재고를 4~5개월

분으로 조정하면서 이미 준비 작업은 마친 상태”라며 “직판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내 제약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셀트리온은 유럽 허가를 획득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의 피하주사 제형 ‘렘

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맵)’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직접 유통·마케팅에 나선다. 렘시마는 종양괴사인자(TNF- $\alpha$ )억제제가 운데 정맥주사 제형과 피하주사 제형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정맥주사의 빠른 효과와 피하주사의 투약 편의

성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렘시마가 약 10조 원 규모의 인플릭시맵 시장을 타깃으로 했다면, 렘시마SC의 출시로 총 43조 원에 달하는 아달리무맵과 에타너셉트 시장까지 조준할 수 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셀트리온은 현재 25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2035년까지의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항체 바이오의약품은 물론 케미컬의약품까지 갖춰 1425조 원 규모의 전 세계 제약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16% 인구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서 회장은 나머지 84% 시장에 눈을 돌려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최우선적으로 중국 시장에 상반기 중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셀트리온은 생산 기지 다원화와 원

가 절감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2만 l 규모의 3공장은 당초 예정대로 국내에 짓지만, 추가로 생산 원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해외 국가를 찾아 24만 l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공지능(AI) 원격진료 사업과 선진국의 의료 서비스비용 절감을 위한 너싱 시스템(Nursing System·간호사 파견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직판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면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인 제넨텍이나 암젠 못지않은 회사로 거듭난다”며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해내왔으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날 시기를 구체화했다. 그는 “2020년까지 바이오와 케미컬을 아우르는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창업주인 내가 할 일”이라며 “2020년 말 은퇴하고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재벌가女수장들 ‘엇갈린 희비’

이부진, 최대매출 견인·이미경, 복귀 임박... 이서현·박성경, 경영 일선 물러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미경 CJ 부회장

유통 재벌가 여성 경영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실적 부진과 자금 압박, 각종 구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황에도 높은 실적을 견인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로 부상한 이도 있다.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복귀 시기를 저울질 중인 이도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전 사장과 이랜드 박성경 전 부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반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최대 실적을 견인하며 역시 ‘리틀 이견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권의 압력으로 치료를 이유로 경영에서 손을 뗐던 이미경 CJ 부회장의 복귀도 임박했다.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은 지난해 말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삼성물산 패션사업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전 사장은 16년간 패션부문을 이끌 어왔다. 표면적인 퇴진 이유는 사업 부진이지만 삼성바이오 사태 수습용 인사라

는 분석도 나온다. 아침차게 론칭한 에잇 세컨즈도 글로벌 SPA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2649억 원, 12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년간 이랜드 그룹의 경영을 진두지휘해온 박성경 부회장은 이랜드 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서현 전 사장과 닮은꼴 퇴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랜드 창업주인 박성수 회장의 동생인 박 부회장은 1984년 이랜드에 입사해 중국 사업의 성공을 견인한 인물이다. 일찌감

치 SPA 브랜드를 론칭하고 중국 유통망을 확충했지만 박 부회장 역시 실적 부진과 부채가 발목을 잡았다. 2013년 말 399%에 달하던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통성 위기 극복을 위해 이랜드는 이랜드리테일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서현 전 사장의 언니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8년 만에 최대 실적 견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호텔신라가 연결기준 매출 4조6000억 원대, 영업이익 2000억 원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해 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



박성경 전 이랜드 부회장

명단’에 한국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미경 CJ 부회장은 올해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CJ는 문화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CJ그룹의 문화 사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최근 법원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 이 부회장의 퇴진에 압력을 가했다는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의 복귀설도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가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생산성·투자·반도체 가격 급락〉

# 무너진 산업 생태계... 황금돼지해, 길 잃은 'P·I·G'

## 세계 뒤흔친 글로벌 위기감

한국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 기업투자, 반도체 빼면 21% 감소 수출 외팔이 D램 가격도 고점 논란 경쟁·규제·불황... 안팎 삼중고 시름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돼지(P.I.G)가 아사(餓死)할 판입니다.”

글로벌 불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재계도 백적간두의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영의 기본이 되는 생산성(Productivity)과 투자(Investment)의 부진, 그리고 한국 수출의 외기동 역할을 했던 반도체 가격 급락(Ground zero)을 합쳐 ‘돼지의 위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그라운드 제로’는 핵무기가 폭발한 지점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지난해 사실상 한국경제를 외팔이했던 반도체의 가격이 올해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 저하 우려로 직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무제 도입과 상여금 지급 방법을 놓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면 대기업도 극심한 후폭풍에 빠질 수밖에 없다.

A그룹 관계자는 “임금 인상과 생산량 증가가 동행하지 않으면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고 제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올해 매출이 간신히 전년 수준을 지키더라도 이익은 ‘뚝’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이미 2016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로 OECD 35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국가의 2016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달러, PPP적용)

아일랜드	83.1
룩셈부르크	81.2
노르웨이	79.1
벨기에	64.6
덴마크	63.4
한국	32.9
G7 평균	55.4
OECD 평균	47.0

총투자 증가율 (단위: %)



PC D램 가격 (2018년 12월 기준)



자동차업종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연봉은 9000만 원 초반에서 9600만 원대로 급증했다. 이는 도요타(약 8400만 원), 폭스바겐(약 8300만 원)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한때 500만대에 육박했던 국내 자동차 연생산 규모는 지난해 400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선행지표인 투자위축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30대 그룹의 투자 규모는 45조69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빼면 오히려 21%나 급감했다. 조장욱 서강대 명예교수는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위험신호”라며 “투자가 줄면 자본과 노동생산성, 고용, 자본생산성이 감소해 투자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각종 규제가 꼽힌다.

B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131억1000만 달

리)였는데 공유경제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이른바 도피성 해외투자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고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5월, 6개월 만에 마이너스(-7.0%)로 전환한 데 이어 7월부터 11월까지 10월을 제외하고 4개월간 전달보다 생산이 감소했다. 생산 부진의 주 요인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다. 올해

1분기 역시 메모리 반도체 평균가격이 20% 인팍으로 하락하고 연간으로도 지속적인 약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은 급락이 아니라 조정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 수주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설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위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진행되는 상황에

서 공급초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지 업체들은 올해부터 메모리를 대규모 공급할 예정이다. 또 중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신성장 동력의 발굴·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유진 기자 eugene@

## G2 경기둔화... 숨죽인 '수출 코리아'

美·中 성장률 첫 동반하락 예상 브렉시트로 유럽도 경제 혼란 반도체 시장마저 불안한 장세 정부만 선부른 '수출 낙관론'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G2(미국·중국)의 경기 동반 하강 공포가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39%를 차지해 G2의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커진 실물경제 둔화 등 경기하강 압력에 대응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11월 수출과 고정투자자 부진하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201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월 제조업 PMI도 201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크게 악화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G2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상반기 중 경기 하방 압력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도 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린 상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4일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2019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연준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will be patient)”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3일에는 '중국발 애플 쇼크'가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1분기(지난해 10-12월) 매출이(기존 전망치인 약 900억 달러보다 낮은) 8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며 '매출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은 중국'이라고 밝히면서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 성장률은 6.5% 이하, 미국은 2.5%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첫 동반하락이다.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상, 유럽 경제 둔화 가능성 등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올해는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상황도 만만치 않다. 코트라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52.1로 작년 4분기보다 5.5P 하락했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수출이 직전 분기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품목별로는 가전과 반도체가 각각 39.5P, 19.6P 하락하며 기준치를 밑돌았다. 자동차와 철강 수출도 부진이 예상된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5.5%에서 2.5%로 낮췄다. 유진투자증권도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3.5%에서 1.0%로 내려잡았다. KB증권·메리츠증권·KTB투자증권 등도 올해 수출 증가율이 작년(5.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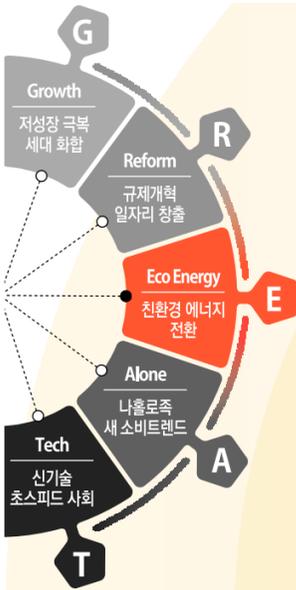
정부는 올해 수출도 낙관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천연가스로,  
깨끗하Go  
안전하Go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로  
내일은 더 맑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맑음  
한국가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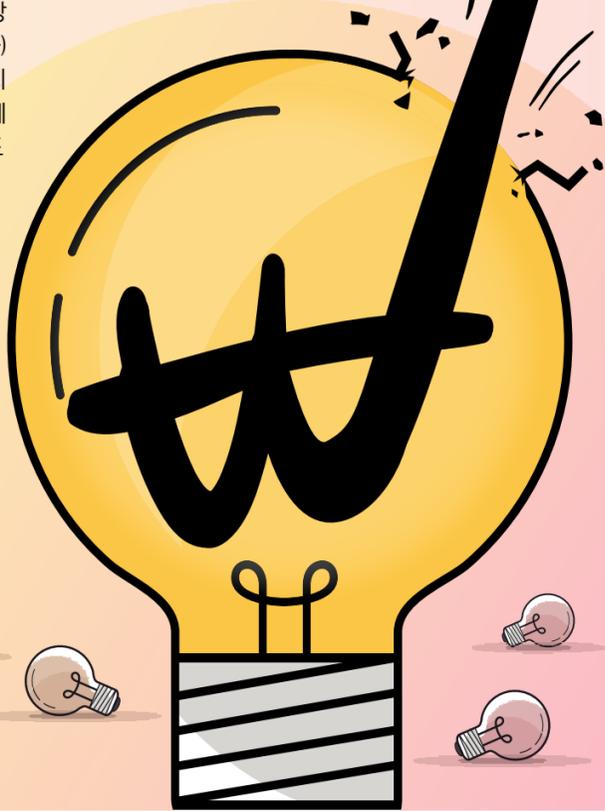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이상 높지만... 현실은 전기료 폭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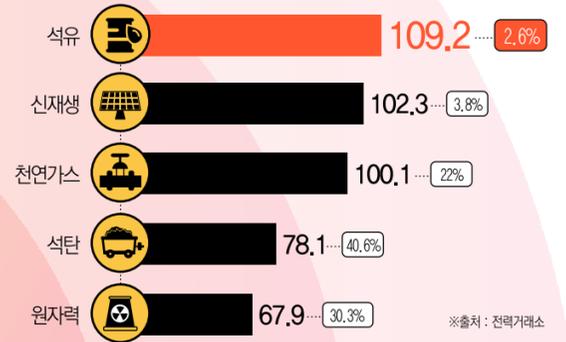
## 文정부 '탈원전 정책' 어디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해 7월 “두부 값(전력)이 콩 값(원자력)보다 싸다”고 말해 전기료 인상에 불을 지폈다. 한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서도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전과 자회사에 재무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암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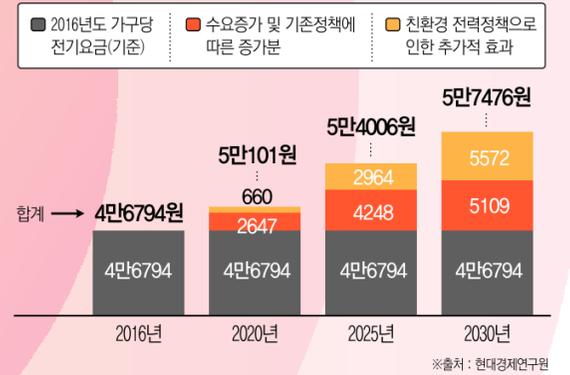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안보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이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저해한다.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및 전력 비중  
(단위: 원/kWh, 2016년 기준) □ 전력 거래 비중(%)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가구당 월 전기요금 인상효과 추정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여당에서도 전기료 인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용 등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전환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매체에 “전기료를 2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2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 기조와 배치되지만 ‘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전기료 인상에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 “탈원전이 가능 중인 원전을 즉시 멈추는 게 아니다.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전력 공급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기적 요금 급등

## 여당에서도 “글로벌 수준 고려 주택·산업용 전기료 올려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도 산림훼손·토지오염 등 부작용 우려 업계 “경제적·안정적 전력 공급수단인 원전 계속 사용해야”

은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원(신재생·LNG 등)을 늘리고 수요를 관리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탈원전 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16년 기준 94.7%이며 원자력 발전을 국내 생산에 포함하면 83.1%로 낮아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 단가가 유연탄, LNG,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낮고

(LNG의 50%),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해 원전 이용률이 급감하면 전체 발전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시 우려되는 건 전기요금 상승뿐만이 아니다. 전력업계는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원전산업과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백지화와 표준형 원전 수출 지연 등으로 인해 원전 제조사의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국산화에 성공했음에도 원전

부품 시장이 붕괴돼 부품 조달을 다시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부품가격 상승과 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수 인재들의 원자력 기피 현상으로 전체 원자력 산업의 질적·양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논지다.

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탈원전을 외치다 회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만은 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영국 역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 20년 만에 친원전으로 회귀했다.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전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원전은 안전성 논란에도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방식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로 안전성 논란이 더 커졌다. 여기에 친환경 추세로 탈원

전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역시 발전량을 원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산림훼손, 토지 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된다. 원전은 안전 관리만 잘 이뤄지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자재를 엄격하게 품질 관리하고 있고 정부 규제와 감시도 강화했다”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여 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국산화를 이룩했다”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 전력공급,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 탈원전 롤모델 삼았던 대만 결국 폐기... 中 이어 英도 추가 설치

대만 국민이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문 폐지에 찬성표가 59.49%에 이른 것이다.

대만인들은 2016년 대선에서 탈원전 공약을 내건 차이잉원을 선택했으나 2년 반 만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2017년 8월 화력발전소 사고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668만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기는 초유의 ‘대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다시 원전으로 복귀한 것이다.

대만에 있는 3개의 원자로로는 2017년 전체 전력공급의 8.3%를 차지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여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국민은 이런 공허한 말에 등을 돌렸다.

대만 국립청화대학의 리민 원자력공

## 대만,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국민찬성 60%로 탈원전 폐기 中, 최신형 원전 상업운전 개시 英, 13기 신규 원전 건설 계획 佛, 원전 비중 축소 계획 연기

학과 교수는 “대만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섬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해서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며 “또 남은 전력공급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석탄은 환경오염을 매우 크게 유발하는 연료다. 액화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려면 선박과 LNG터미널, LNG를 저장하기 위한 대형 탱크 등이 필요하다. 이는 안전하지 않다. 또 LNG 가격은 변동이 심해서 전기료도 요동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대만처럼 많은



세계 첫 3세대 원전인 중국 타이산 원자력발전소의 1호 원자로. 타이산/신화뉴스

국가가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영국은 신규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의존율이 70%를 넘는 프랑스는 2017년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 비중을 50%로 낮춘다는 계획 달성 시기를 종전의 2025년에서 5~10년 늦췄다.

프랑스 아레바의 제3세대 원전 기술인

‘유럽가압수형원자로(EPR)’를 도입한 중국광핵집단의 타이산 원전 1호기는 지난달 13일 상업적 운전을 개시했다.

현실적으로 원전만큼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당장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 해도 원전이 없다면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할

수 없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80~95%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유럽원자력산업회의(FOATOM)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EC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유럽연합(EU)의 전체 에너지 구성원에서 원자력 비중이 최소 4분의 1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여야 한다. 28개 EU 회원국 중 14곳이 총 128개의 원자로를 가동해 119기가와트(Giga Watt electric·GWe)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EU 전체 전력 생산의 25%가 넘는 비중이다. 또 원자력은 EU의 무(無)탄소 배출 전력원의 53%를 차지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늘어나는 에코 컨슈머... '친환경'에 지갑 연다

## 소비자도 기업도 '必환경'

#일곱살, 네살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두 아이를 위해 가능한 한 친환경 제품으로만 산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내 아이가 먹을 것이기에 사과 하나를 살 때도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마크를 확인한다. 혹자는 친환경 상품이 기업의 마케팅과 상술에 불과하다며 "유별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현재 소비 패턴을 유지할 계획이다.

#여대생 B씨는 생리대 대신 생리컵을 사용한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B씨는 일회용 생리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생리컵 사용을 결정했다.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에코 컨슈머의 성장이 기업에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제품 성분뿐만 아니라 생산·유통 과정까지 꼼꼼히 따지며 기업의 친환경 비즈니스를 촉구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친환경 비즈니스가 소비자의 요구 때문에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도 친환경 비즈니스를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 건강·안전 중시하는 소비성향... 제품성분 등 꼼꼼히 따져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 급성장... 2025년 2조원대 전망  
업사이클링 브랜드·리사이클링 제품 등 기업도 새 먹거리 인식

◇"나를 위해, 환경을 위해"...친환경 비즈니스는 선택 아닌 필수=지난해 발표된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3068억 원에서 2025년 2조1360억 원으로 약 60% 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친환경'을 윤리적·도덕적 가치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면서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을 너머 '필(必)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이왕이면 좋은 것' 혹은 자신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할 때가 됐다는 의미다.

소비자의 변화에 기업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친환경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사업군에서 친환경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기업이 변한다...매출 확대 등의 효과도=기업 입장에서 친환경 비즈니스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라는 광고로도 많이 알려진 파타고니아는 환경 보호에 기업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경영 이념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환경 보호 가치를 공유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 비즈니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지만 파타고니아는 미국 아웃도어브랜드 2위로 급성장하며

친환경 비즈니스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외국 기업뿐만 아니다. 국내 기업들도 환경에 관심을 보이며 친환경 비즈니스에 나서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의 '레코드'도 대표적 친환경 브랜드다. 소각 예정인 재고들을 해체한 뒤 원단을 재조합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재활용)으로 새 제품을 만드는 것) 브랜드인 레코드는 론칭 7년 만에 매출액이 약 4배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출시한 토트백은 기존보다 물량을 10배 늘렸는데도 완판(매진)됐다.

블랙야크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나우(nau)'는 세계 최초로 100% '리사이클 다운' 제품을 선보였다.

나우의 리사이클 다운은 침구류에서 모은 깃털과 솜털을 재가공한 충전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패딩이다. 코튼 또한 친환경 기관 인증을 받은 BCI(Better Cotton Initiative) 소재만을 사용한다. 이 제품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 신장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레코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재고 스웨터에서 뽑은 털실로 소품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해외 친환경 정책은

### “플라스틱·비닐 OUT!”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기후변화에 맞서고 있다. 해양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전기자동차를 장려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을 장기적으로 퇴출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유엔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자연연구소(WRI)가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192개 유엔 회원국 중 66%에 해당하는 127개국이 비닐봉지 규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유엔 회원 127國 비닐봉지 규제
- 유럽의회, 플라스틱 사용금지 추진
- 인도·일본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

이런 플라스틱 퇴출 열풍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는 비닐봉지 사용을 형사 범죄로 규정해 제약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플라스틱 봉지와 포장재 생산, 수입,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케냐는 2017년 비닐봉지를 팔거나 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4년형 징역형이나 최고 3만8000달러(약 4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친환경 정책의 또 다른 화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차량' 퇴출과 '신에너지 자동차' 장려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2030

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 이후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전기 구동 방식을 채택한 차량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올해 더욱 강력한 신에너지 자동차 촉진책을 펼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3만대 이상 생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순수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크레디트를 사들여야 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광고심의번호: 2018-1455-004400

## 99세까지 건강하게-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 나인나인<sup>®</sup>

정 하루 한알

**효능·효과** ●육체피로 ●눈 건조감 완화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충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 韓 기업, 해외 투자 사상최대... 국내는 '질کم'

### 지난해 1~3분기 누적 해외 직접투자액 360억 달러 7.5% 증가 국내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행진...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필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국내 투자와는 대조적이다.

6일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액(도착액 기준)은 36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25억 달러)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인 2017년의 43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36억 달러는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269억 달러·도착액은 164억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지난해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사례로

LG전자의 오스트리아 자동차용 헤드라이트·조명업체(ZKW) 인수를 꼽을 수 있다. LG전자는 작년 상반기 ZKW 지분 70%를 7억7000만 유로(약 1조108억 원)에 인수했다.

국내 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5.7% 줄어든 데 이어 3분기에도 4.7% 감소했다. 설비투자 부진은 작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인으로 꼽힌다.

설비투자 부진은 우리 기업의 해외직

접투자 확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은 규제 장벽과 세계의 흐름에 역행한 법인세 인상,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확산에 따른 관세 폭탄 우려 등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2000년 30.8%에서 2015년 24.2%로 내렸다가 2018년 27.5%로 다시 올라갔다. 여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생산성 저하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투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사업화 추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우윳값 오르나... 가공식품 줄인상

원윳값 인상 여파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서울우유·남양유업 등 우유 회사의 흰 우유 인상을 계기로 각종 우유·커피·빵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뉴스시

## 금통위 의사록 인공지능으로 분석해보니...

### 매파 단어 많은 시기, 금리인상

#### 경기 등 2만여개 단어 조합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의사록은 기준금리 결정의 포워드 가이드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수현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박기영 연세대 교수 등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기 시작한 200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금통위 의사록을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준점 0 위에서는 인상이, 아래에서는 인하가 이뤄졌다. 아울러 절대값이 ±0.4 정도보다 높으면 추가 인상이나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것으로 추정했다.

머신러닝 기법이란 금통위 의사록에서 추출한 형태소 조합(n-gram)을 통해 감성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매파적(금리인상 시사)인 1부터 비둘기

파적(금리인하 시사)인 마이너스(-) 1까지 수치화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매파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확장', '물가+상승', '경기+과열+우려'나, 비둘기파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하향', '물가+하락', '침체+가능성+높' 등 2만여 개 단어를 조합해 등장 여부나 횟수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결과를 기존 테일러준칙의 국내총생산격차율(GDP갭률)과 인플레이션율 등과 함께 분석할 경우 금리 움직임을 상당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전 한국의불확실성지수(EPU 및 UI) 등에 비해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 높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김수현 위원은 "지수가 금리결정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진단하는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文 대통령, 참모진 개편으로 조기 레임덕 차단

### 비서실장·정무·국민소통수석 교체... 분위기 쇄신 경제 올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개편한다. 이번 인사는 친정 체제 강화로 청와대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지층 이탈이 심한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비서관급에서는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포함된다.

현재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조현욱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김영배 정책조정·김우영 제도개혁·민행배 자치발전·백원우 민정·송인배 정무비서관 등이다. 이들 중 상당

수는 5월 인사 개편 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임 실장은 현재 종로에서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 대사가 가장 유력하다. 인사 검증에 큰 문제가 없다면 문 대통령이 평소에도 국정을 상의할 정도로 핵심 측근인 노 대사를 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석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익산에 다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후임으로 문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꼽히는 강기정 전 의원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이 거론된다.

윤 수석은 성남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도 있다.

후임으로 김성수 의원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외부 후보전문가가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비서관과 백 비서관, 권 관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내부 경선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치적 부담감이 있어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어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적 쇄신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잡음이 많았던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는 친정 체제로 국정 개혁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민 기자 lawsdm@

## 난임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까지 확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이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에서 인공수정까지 확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뿐 아니라 인공수정(3회)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다. 1회당 50만 원 한도로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종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 예

산은 18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7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난임 원인, 임신 시도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이 수록되는 난임시술 관련 국가통계도 만들어 출산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미세먼지 농도 따라 마스크 지급·휴식시간 보장

### 노동부, 지침서 마련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응 건강 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정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

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폐 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신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해야 한다. 민감군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UAE 금연 정책에 담배 수출 '뚝'

### 지난해 수출액 21.7% 줄어

수출 효자 품목이던 담배의 기세가 꺾였다. 최대 수출 시장인 아랍에미리트(UAE)의 강력한 금연 정책 탓이다.

4일 한국농수산물통공사(aT),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산 담배(연초류) 수출액은 8억6857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1억981만 달러)에 비해 21.7% 줄었다. 그간 담배는 한국 농식품

수출의 선봉장이었다. 해마다 수출액이 10~20% 늘었다. 덕분에 재작년 담배가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했다. 특히 UAE는 한국 담배 수출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수입하는 최대 시장이었다. 하지만 UAE가 금연 정책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UAE는 재작년 10월 담배에 100%의 세금을 부과하는 '죄악세'를 도입했다. 담배 가격이 경중 뛰면서 한국산 담배의 UAE 수출액은 2017년

3억7554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6053만 달러로 급락했다.

수출길이 좁아진 반면 수입 담배는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담배 수입액은 5억3055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억2829만 달러 늘었다. 특히 전자담배 바람을 타고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들어오는 담배 대용품 수입액이 1억5015만 달러로 1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한국의 담배 무역 흑자 폭은 재작년 7억8001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8320만 달러로 반 토막 났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2019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첨단기술이 함께 뛰겠습니다

2018년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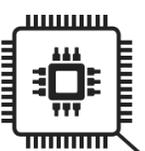


황금돼지야.  
올해 잘 부탁해~~  
나처럼 열심히 뛰려면  
너 아마 다이어트 좀 해야 돼지?

그래 나도 올해엔  
열심히  
뛰어볼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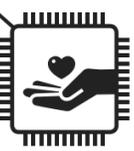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을 만들고  
[DDR5 D램 개발, 96단 4D 낸드 플래시 개발]



모두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M15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장애인 일자리 확충]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치매노인을 위한 행복 GPS 지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시기기 실버프렌드 무상지원]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고민해왔던 2018년  
[SK하이닉스 광고-대한민국 광고대상 통합 대상 수상]

# “시장 급한 불 먼저”... 비둘기 날린 파월

## “삼성 보고 배워라” WSJ, 애플에 조언

美 연준, 긴축 속도조절 공식화  
다우 3.29% 급등... 증시 환영  
급격한 정책변경 불확실성 상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인상 정책을 기존 목표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메시지를 던졌다. 불과 보름 전까지 시장의 기대보다 강한 통화긴축 정책을 고수해 글로벌 증시까지 출렁이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자세다.

4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2019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할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하다면 연준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성과 함께 연준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내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 전·현직 의장 공동 인터뷰'를 위해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한 내용이었다. 그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전임 의장과 전 세계 경제 석학이 모인 자리에서 '긴축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긴축효과를 뒷받침하는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파월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정책 변경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보유자산 축소 정책이) 목적에 기여하고 있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연준은 올해 두 차례 금리인상 의지도 밝혀 금리 동결 또는 인하까지 예상했던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그 여파로 뉴욕증시가 수일간 폭락하는 모습을 본 파월 의장이 새해 들어서는 시장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시장



대륙의 겨울왕국... 하얼빈 빙등제  
마크들을 얼음으로 조각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중국 하이룽장성 하얼빈에서 5일(현지시간) 열린 '국제 빙등제' 개막식에서 불꽃쇼가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매년 1월 열리는 하얼빈 국제 빙등제는 동을 모형과 인기 만화 캐릭터, 전 세계의 유명 랜드 마크들을 얼음으로 조각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2019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왼쪽)이 재닛 옐런(가운데)·벤 버냉키 전 의장과의 공동 인터뷰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보내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경제지표와 금융시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지난 3년간 진행된 금리인상이 올해 예상보다 이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746.94포인트(3.29%) 급등한 2만3433.1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84.05포인트(3.43%), 나스닥 지수는 275.35포인트(4.26%) 상승했다.

긴축정책 중단 분위기에 증시는 반짝한 영향지만 미국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제조업지수는 54.1%로 시장

컨센서스(57.9%)는 물론 11월 59.3%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했다. 2008년 10월 이후 월간 최대 낙폭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가속화하면 세계 경제가 연쇄적으로 침체할 우려가 크다.

한편에선 금리인상 노선이 중단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긴 '시장 왜곡'에 대한 교정을 미처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4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풀면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부채가 팽창했고 신흥국의 달러화 부채도 크게 늘었는데 금리인상을 멈추게 되면 이 위험을 해소할 계기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준은 세계 경제가 악화할 때 5% 이상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바닥 붕괴'를 막아왔지만 (금리인상 노선이 중단되면) 연준이 경기 악화 시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여지를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이른바 '차이나 쇼크'에 직면한 애플이 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삼성전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끝난 2019 회계연도 1분기 매출 전망치를 대폭 낮춰 글로벌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WSJ는 5년 전 삼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애플이 그 지경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의 발목을 잡은 요인 중 일부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도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고 5일 전했다.

WSJ에 따르면 5년 전 삼성은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5대 중 1대를 팔며 중국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과시했다. 그러나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공세를 펼쳐 온 현지 업체들에 추월당해 현재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며 경쟁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2016년 촉발된 '갤럭시 노트 7' 발화로 인한 대량 리콜 사태로 브랜드에 치명상을 입었고, 한국 정부의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허용으로 한·중 관계가 긴장,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브랜드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영향을 받았다.

이에 삼성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략을 선회했다. 인도와 같이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해 '중급(middle-tier)' 휴대폰에 최고의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했고, 인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짓는 데 7억 달러를 투자했다.

애플은 2015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삼성을 제쳤지만 그 이후에는 중국 세력에 점유율을 빼앗겼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더 격화하면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미국산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 WSJ는 반미 캠페인이 벌어지면 중국 시장은 한국보다 더 많은 정치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www.childfund.or.kr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7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적폐 본질은 회장 아닌 인사권자... 자정능력 잃었다”

## 새마을금고 황제경영 ⑨·(끝) 前 직원 내부고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 A씨가 지난 달 13일 본지와 만나 중앙회의 고질적인 내부의 적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반복되는 금고와 중앙회의 문제는 '자정능력의 상실'과 '행정안전부의 관행적인 협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근무 시기와 직책은 특정될 수 없어 표기하지 않았고,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표기했다.

우선 A씨는 금고와 중앙회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본질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회는 회장에게 집중돼 있는 구조이지만, 내부에 굵은 문제가 더 크다. 회장도 결국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야 한다. 만약 회장 한 사람의 문제였다면, 새마을금고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될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중앙회는 인사권을 지닌 이들이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 그는 “중앙회 지역본부는 각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다.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

중앙회 인사권자의 전횡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 지방 발령  
회장 교체에도 권력 구조 굳건

상위-피감기관 유착 의혹  
중앙회 직원, 행안부 파견 근무  
일정기간 정보 공유 역할 맡아

독립·객관성 잃은 감독 기능  
행안부, 중앙회 감사 先공문  
내부 심사 통해 사전 조율 진행

이다. 내부적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이너서클'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회장이 바뀌어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



는.”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런 구조에선 내부 직원들이 중앙회와 금고 문제에 대해선 함구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회는 자정능력을 잃었다. 내부의 비판과 질타를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괴물이 됐다. 옳은 말을 하는 직원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들을 머문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중앙회 직원은

‘독립’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의 간부로 근무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하겠나. 또 행안부는 중앙회 감사를 나가지만, 먼저 공문을 보낸다. 이를 내부에서 심사해서 사전에 조율한다. 사실상 ‘짤짜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금고 관계자도 “행안부는 중앙회 감사 내용만 보고를 받는다. 중앙회 감사팀 라인 아닌 금고는 강하게 감사하는 식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 행안부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중앙회의 사업은 금융업이다. 믿고 돈을 맡기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건전성을 검사해야 하지만, 지금의 행안부 관리 아래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금껏 부실이 없어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새마을금고는 수많은 지역 금고가 있고, 중앙회에는 신용공제 대표이사 아래로 금융기획부, 자금운용부 등 큰 돈을 굴리는 요직이 있다. 업계의 접대를 받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객신사 기자 jinsan@



2019년 신한경영포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원 신한’이 그룹에 정착되고 그 가치가 발휘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4~5일 경기도 용인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19년 신한경영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경영방침을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제정한 경영 슬로건 ‘더 높은 사선(視線), 창도(創導)하는 신한’ 중 올해는 ‘창도하는 신한’에 역점을 두고 그룹 전체가 “창조적 실행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회장(왼쪽 세번째)과 그룹사 CEO 및 경영진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 산업銀, 출세 지름길 ‘인·비·홍’

(인사·비서·홍보)

### 금융 인사이트

신임 부행장 등 6명 중 4명  
“대관·홍보업무 중요성 커져”

‘인·비·홍.’ 산업은행 직원 간 대화에서 종종 오르내리는 표현이다. 인사부, 비서실, 홍보실의 앞 글자만을 따서 만든 은어다. 추후 요직을 맡기 위해서 거쳐야 한다고 입소문이 돌고 있는 부서들을 모은 것이다. 최근 임원 인사에서도 이들 부서를 거친 인물들의 이름이 많았다. 산업은행은 이번주부터 나머지 직원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이 최근 신규 선임한 수석부행장 1명과 부행장 5명 총 6명 중 ‘인비홍’을 거친 인물은 4명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성주영 산업은행 기업금융부장 겸 구조조정부행장의 수석부행장 신규 선임이 눈에 띈다. 성 수석부행장은 2006년부터 2년 간 홍보실 팀장을 역임했고, 2014년에는 다시 홍보실로

돌아와 실장을 맡았다. 기존 부행장 중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인 백인균 경영관리부행장 또 한 홍보실장 출신이다. 이달 초 사임한 이대현 전임 수석부행장도 홍보실장과 비서실장을 두루 거쳤다. 이후 기획관리부행장, 정책기획 부행장 등을 거쳐 2016년 9월 수석부행장으로 선임됐다. 이 전 수석부행장은 성 수석부행장의 선임으로 임기 9개월을 남기고 사임했다. 그는 금호타이어 회장에 내정된 상태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원들이 임기를 끝내고 일할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임기를 9개월이나 남기고도 다음 행보를 정한 것은 ‘축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관이나 대외업무 등 홍보실에서 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갈수록 홍보실에 관심을 표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주변 업무로만 인



이대현 금타 회장 내정자 성주영 수석부행장 백인균 부행장

식되던 홍보실의 업무 활동이 대외 이미지는 물론 산업은행 안팎에서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부서’로 각인되면서 홍보맨들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고경영자(CEO)를 근접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의 위상 또한 남다르다. 부문장 중에서는 최대현 기업금융부행장이 작년 1년간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양기호 리스크관리부행장은 비서실 경영정보팀장, 인사부장 등을 거쳐 최근 혁신성장금융 본부장을 역임했다.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부행장도 최근 KDB미래전략연구소장을 하기 전에 비서실 경영지원팀장을 거쳤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BC·롯데·신한카드 ‘QR 스캔 결제’ 출시

### 제로페이 대응 공동 결제 서비스 스마트폰 전용 앱 통해 사용 가능

BC·롯데·신한카드는 7일부터 앱투앱(App to App) 간편결제 서비스인 ‘QR 스캔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객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맹점의 테이블이나 계산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맞서 카드업계가 내놓은 공동 QR페이이다. 특히 실물 카드가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페이북(paybooc)’, ‘롯데카드 라이프’, ‘신한페이판(payFAN)’ 등 이번 서비스에 참여한 카드사 앱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테이블에 QR코드가 부착된 매장에서는 자리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끝나므로 계산대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가맹점은 별도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가맹점 전용 앱을 가맹점주의 스마트폰에 받

으면 된다. 밴(VAN)사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객 앱에서 가맹점주 앱으로 정보가 오가는 앱투앱 방식이어서 가맹점 수수료가 싸다. 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BC카드는 0.14%포인트, 롯데·신한카드는 0.13%포인트 낮다.

단말기 설치 부담이 없어서 푸드트럭과 같은 영세·소상공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카드사 중 한 곳의 가맹점 전용 앱만 설치하면 다른 카드사의 QR페이 결제 관리, 매출내역 조회 등 업무도 볼 수 있다.

카드업계가 이같이 공동으로 QR 스캔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QR페이 방식의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QR페이는 이득이 많지 않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다.

이강혁 BC카드 사업인프라부행장(부사장)은 “QR 스캔 결제” 도입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 “어느 장단에”... 금융위-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충돌

### 30일 종합검사 계획안 확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갈등을 불식시키고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감독총괄국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는 등 내부 단속에 고평을 죄는 모양새다. 종합검사가 윤석현 금감원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잡음을 줄이고 결정에 무게를 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금융위가 금감원에 종합검사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사권’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금융위는 종합검사로 인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 보복성 악용 등의 시장 부작용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금감원이 종합검사 부활이 포함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자 금융위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 통보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현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지난해 시범실시에 이어 올해부

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관행적으로 모든 금융사를 검사 대상으로 정하기보다 취약점이 많거나 업무 전반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금감원은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여론에 감독총괄국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고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일 경우 감찰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종합검사 착수 시기는 다음 달까지 금감원 내부 인사가 진행된 이후, 이르면 3월로 예상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수검부담 완화 등 검사 태도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큰 틀은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감성지능〉

# 시가 날 위로하네...사람 마음 알아주는 'EI 혁명'

**미리 보는 CES 2019**  
삼성전자 마인드 리딩 기술 특허 뇌파로 게임하고 결말도 맘대로  
기아차 '내 기분' 맞춰 차량설정

직장인 A 씨가 인터넷 쇼핑물 채팅창에 "4일 전 주문한 귀걸이를 아직도 받지 못했는데, 언제 배송되나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인공지능(AI)이 "네, 고객님, 이틀 안에 배송 완료될 예정입니다"라고 답한다. 하지만 감성지능(EI)을 갖춘 인공지능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귀걸이를 착용하실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택배 시스템 문제로 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주말

에 예쁜 귀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실 수 있게 이틀 내 배송 완료하겠습니다." 직장인 B 씨가 자율주행차에 앉자마자 차는 B 씨의 표정을 읽는다. 어두운 표정이 감지되자 차량 내 인공지능은 차분한 음악을 틀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내부 온도와 조명을 조정한다.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2019'에서는 5G(5세대 이동통신)와 고도화된 인공지능(AI)에 감성지능(EI: Emotional Intelligence)을 입힌 새로운 기술들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먼저 기아차는 올해 CES 전시 주제를 '감성 주행의 공간'으로 잡았다. 자율주행이 보편화하면 이동성이 극도로 향상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 '감성 주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CES 기간 기아차가 선보이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Real-time Emotion Adaptive Driving)' 시스템은 차량이 알아서 탑승자의 기분을 알아채는 기술을 담았다. AI,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READ 시스템은 생체 정보 인식을 통해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소리, 진동, 온도, 향기, 조명 등 운전자의 오감과 관련된 차량 내 환경을 운전자의 감정에 따라 최적화해준다. 국내 스타트업 딥센트는 스마트 향기상자 '아롬(arom)'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용자 상황에 어울리는 향기를 만들어 공간에 감성을 더하는 솔루션이다. 향기 캡슐 4개를 아롬박스에 넣은 후, 인터넷으로 연

동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앱을 통해 향을 직접 만들 수 있다. KAIST도 이번 CES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수영 교수가 개발한 상대방 감성에 맞춰 대화하고 반응하는 인공지능 대화 '에이전트 기술'을 공개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AI에 감정을 입히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지난해 감성인식 스타트업 아크릴에 투자했다. 아크릴이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조나단(Jonathan)'은 사용자의 질문에 지식을 기반으로, 단순 답변이 아닌 질문자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에 알맞은 답을 해준다. 삼성전자 역시 사람 감정을 읽는 기술 특허를 내며 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CES에서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로열 등이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를 하드웨어에서 대변혁이라고 한다면 'EI'는 소프트웨어에서 혁명이다. 특히 인간과 AI는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그 속도는 무한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은 '마인드 리딩(Mind Reading)'이다. '마인드 리딩'이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소프트웨어로 읽는 기술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뇌파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영화의 결말을 바꾸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인간 감성과 교류하는 AI시대가 이번 CES를 통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송영록 기자 syr@

## 디트로이트 모터쇼 대신 CES 간다?

韓배터리업계 실익 적다 판단  
SK이노베이션, IT박람회로  
LG화학도 "올해는 불참"  
삼성SDI만 6년째 참가

올해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는 삼성SDI만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통상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가 대거 참가하는 국제 모터쇼에 참가, 기술력을 입증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올해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딜러협회가 매년 1월 디트로이트에서 개최하는 국제자동차 전시회로 '북미국제오토쇼'로 불리기도 한다. 6일 삼성SDI에 따르면 이 회사는 1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부스를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혁신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로써 삼성SDI는 6년 연속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하게 됐다. LG그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했던 LG화학은 올해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올해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미 폭스바겐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모터쇼에 참가해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기존처럼 참가하지 않는다. 대신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9'에 참가해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LiBS(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를 전시하며 기술력을 자랑할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6년 25GWh에서 2025년엔 최소 300GWh에서 최대 1000GWh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장에 6200만 달러를 투입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LG화학 역시 중국, 유럽 등 생산 공장 증설에 조(兆) 단위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 융복합으로 인해 CES 등 국제 전시회의 장벽도 허물어지면서 배터리 업체들이 모터쇼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회에서 고객사를 만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CES 2019 거리 장식한 LG 씽큐**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 개막을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민들이 LG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ThinQ)'의 옥외광고에 관심 있게 보고 있다. CES 2019는 8일부터 11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린다. 사진제공 LG전자

## 편의점 경기 최악 전망 소매유통업 3분기 연속 하락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유통업계가 1분기 유통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전분기보다 4포인트 하락한 92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3분기 연속 하락세다. 이 지수가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업체별 지수를 살펴보면 홈쇼핑(110)과 온라인쇼핑(103)은 경기 호전을 기대하는 기업이 많았다. 백화점(94), 대형마트(94), 슈퍼마켓(80), 편의점(71) 등 오프라인 업체들은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소매유통업계의 1분기 수익성은 '악화할 것'(72.9%)이라는 전망이 '호전될 것'(8.5%) 전망보다 많았다.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편의점(88.8%), 슈퍼마켓(67.5%), 대형마트(55.3%) 등의 업체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유통업체들은 '규제 완화'(45.6%), '최저임금 속도조절'(16.6%), '제조업 수준의 지원'(16.6%) 등을 꼽았다. 변효선 기자 hsbun@

## 기아차, 노후 경유차 폐차 신차 구입 시 40만원 지원

기아차는 10년 이상 운행한 경유차량 말소등록(폐차 또는 수출) 고객을 대상으로 기아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할 시 차량 가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10년 경과 노후 경유차량(최초 등록기준) 보유자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 원 한도,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감안 시 최대 143만 원) 정책' 시행에 맞춰 실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등 대표 차종 구매 시 30만 원을, 카니발, 봉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차량 구매 시 40만 원을 지원해 생계형 노후 경유차량 보유 고객들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10년 경과 노후 경유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 및 6월 30일까지 연장된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변효선 기자 hsbun@

## 혹한 속 '신형 에어컨' 경쟁...대세는 인공지능

캐리어 '18단 AI제품' 출시  
삼성·LG도 연초 공개 예정



캐리어에어컨의 신제품 '더 프리미엄 AI 에어로 18단 에어컨'. 사진제공 캐리어에어컨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에어컨 업계의 경쟁이 연초부터 가열될 분위기다. 캐리어에어컨은 일찌감치 신제품을 출시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르면 이달 말 2019년형 에어컨을 선보일 전망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캐리어에어컨은 3일 2019년형 에어컨 '더 프리미엄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1대의 실외기에 다수 에어컨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에어시스템' △고효율·고풍량·저소음을 실현하는 신규 '하이브리드 하든 팬(FAN)'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다른 가전업체들도 앞다퉀 신제품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에어컨 12종에 대한 적합등록을 받았다. 업체는 적합등록을 받

은 제품을 당장 출시하지는 않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선보인다. 삼성전자 또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2월 이전에 에어컨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에어컨에는 기능이 한층 향상된 인공지능(AI) 장치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때 업체들은 미세 먼지 여파로 공기청정 성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성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상당수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만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작년과 비슷하게 음성만으로 온도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간단한 AI 기능 외에 개별 소비자의 냉방 패턴을 인지하는 빅데이터 활용 기능 등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캐리어에어컨은 올해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기기 스스로 실내 환경을 파악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장착하는 등 동작보다 향상된 인공지능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도 비슷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2018년형 무풍에어컨을 선보일 때 AI 적용으로 사용자 환경을 24시간 감지해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 또한 작년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기기가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 딥싱큐를 장착해 사용자의 언어까지 학습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가전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겨울에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인다. 제품 성수기는 여름이지만, 물량 부족과 설치 시기 조율 등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업체들은 연초에 제품을 공개해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에어컨이 공기청정, 제습 기능을 갖추면서 사계절 가전으로 거듭난 것 또한 겨울 출시 이유 중 하나다. 이마트에 따르면 2017년 에어컨 전체 매출에서 비성수기(6~8월 제외) 판매 매출 비중이 48%를 차지했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눈사람은

I am your Energy가

핑핑핑 함박눈 내리던 날,  
 온가족이 모여, 다같이 만들던 눈사람,  
 비록 눈코입은 제각각이지만,  
 즐거운 작품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어제의 그런 훈훈한 추억이 모여,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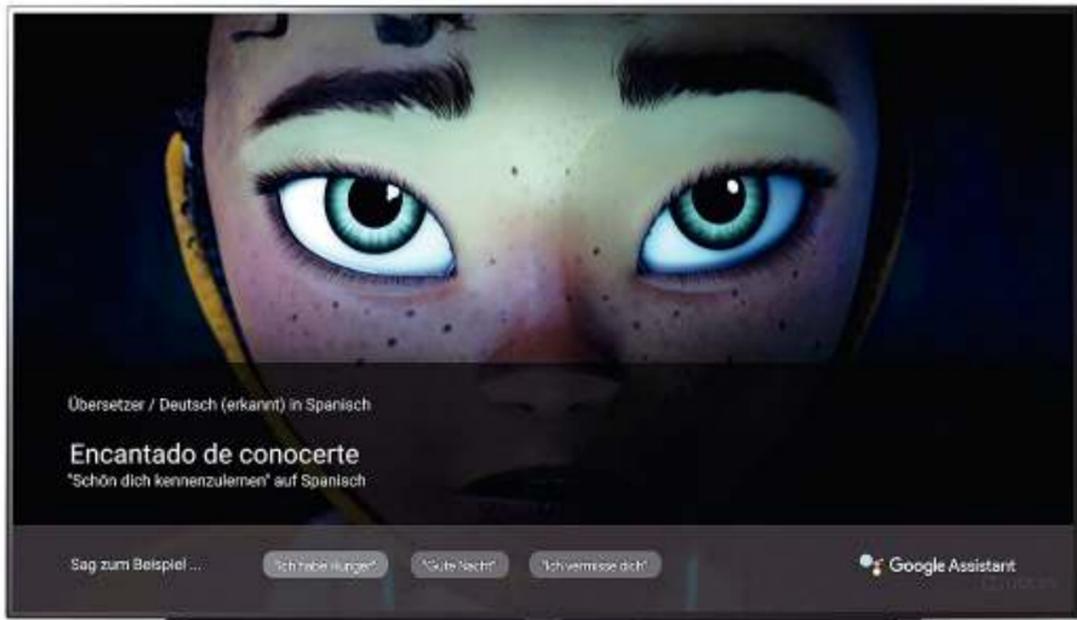
# LG·소니·화웨이...구글 어시스턴트 동맹

### 글 쓰는 순서

- ① 막 오른 폴더블폰 레이스
- ② AI 플랫폼 동맹
- ③ 美·中 사이에 낀 韓 로봇
- ④ 갈 길 먼 자율주행 상용화

인공지능 생태계 주도권 싸움  
IT vs 제조사 올해 성패 운과

구글, 제조사와 '적과의 동침'  
삼성, 모바일서 생활가전까지  
년 5억대 자체 디바이스 강점



구글 어시스턴트를 장착한 LG 올레드 TV AI 씹큐. 사진제공 LG전자

### 글로벌 기업 AI 투자 및 기업 인수

기업명	연도	내용
삼성전자	2016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미국 시뮬레이션 개발사 '비브랩스' 인수
	2017	국내 대화형 AI 스타트업 '플런티' 인수
LG전자	2018	AI 신생기업 1억5000만 달러 투자펀드 조성 AI·5G 등에 25조 원 투자 계획 발표 캐나다 몬트리올 AI 연구소 설립. AI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기업 '지랩스' 인수
	2018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설립 AI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아크릴' 투자 이스라엘 자율주행 AI업체 '바이비전' 투자 AI 솔루션 특허 보유 업체 '자이아팔콘' 투자
구글	2014	답마인드 인수
	2017	AI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래티스 데이터' 인수
애플	2017	AI 얼굴 인식 기술 기업 '리얼페이스' 인수
	2018	개인정보 보호 관련 AI 기업 '실크 랩스' 인수
MS	2016	AI 가상 키보드 기업 '스위프트키' 인수
	2017	자연어 처리 특화 AI 스타트업 '말루바' 인수
	2018	AI 데이터 모델링 스타트업 '로보' 인수 AI 알고리즘 제작 스타트업 '본사이' 인수

# 하만·비브랩스·지랩스 인수...삼성 빅스비 혈맹

“구글과 아마존이 받침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18' 현장을 둘러본 업계 관계자들은 전시회의 화두를 이같이 축약했다. IFA 현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생태계 주도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향후에도 가열될 이번 전쟁에서 승기의 핵심은 '동맹'으로 얼마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라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동안 AI는 콘셉트와 미래의 일상생활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소개되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올해 성패의 운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AI 플랫폼을 두고 격렬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조사 대표 진영과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글 등과의 대표 기업 간 '적과의 동침'이 관심사다.

구글은 자체 디바이스 없이 글로벌 제조사 제품 곳곳에 침투한 '구글 어시스턴트'로 AI 시장을 공략한다. IT·소프트웨어 회사답게 눈에 띄는 AI 가전제품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에 글로벌 가전기업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곳곳에 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뿌리내리고 있다. 제조사들이 구글의 AI 플랫폼 진영에 줄을 서며 구글 어시스턴트는 막강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글은 LG전자, 소니, 화웨이 등의 제품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시켰다.  
현재 AI 플랫폼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는 IT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빅스비 개발자 데이'에서 이지수 삼성전자 시팀 상무가 '함께 만드는 인텔리전스, 빅스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네이버 등의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AI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포털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마켓과 자체 애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등 폭넓은 장구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을 자사 AI 플랫폼에 끌어들이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들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자체 AI 플랫폼 전략을 고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막강한 디바이스 라인업에 '빅스비'를 적용해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해마다 5억 대

씩 팔리는 삼성전자의 제품으로 '우리 제품에 다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능형 어시스턴트 '빅스비'와 오픈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가전제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서 자체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삼성은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을 들여 인수한 하만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AI 스피커 '캘럭시홈'에는 하만의

AKG스피커 6개와 우퍼 등을 장착해 경쟁 제품에 비해 음질을 높였다.  
2016년 미국 AI플랫폼 개발 기업 '비브랩스'를 인수했고, 2017년에는 대화형 AI 서비스 국내 스타트업 '플런티'를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AI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기업 '지랩스'를 품에 안으며 AI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LG전자는 구글, 아마존과 협업하며 '무엇을 쓰든 LG와 연결된다'는 개방형 생태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LG의 AI 브랜드 LG 씹큐(ThinQ),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모두 지원되는 가전제

품으로 상황과 생활방식에 따라 AI가 구동하도록 했다. 자체 개발 AI 플랫폼만 고집하기보다는 이미 널리 알려진 IT 기업의 AI 플랫폼을 모두 흡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플랫폼을 종합 가전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제품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고객 관점으로 접근할지, 제조사 관점으로 접근할지의 전략적 차이가 기업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아마존, 네이버, 알리바바, 화웨이 등 제조사, IT 기업들도 AI 기업 투자 및 인수를 통해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주력계열사 5곳과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설립하고 활발하게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율주행 AI 업체 '바이비전', AI적용 솔루션 특허 보유 업체 '자이아팔콘' 등에 투자했다.  
네이버는 챗봇 솔루션 개발 기업 '컴퍼니AI'를 인수한 것에 이어 '퓨리오사AI', '딤픽셀', '토키IQ' 등 AI기반 챗봇, 머신러닝, AI음성통화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으며, 카카오톡 '스켈터랩스', '레블업', '토록' 등 다양한 AI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신기술 추세를 자체 개발로 따라잡기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술보유 기업들과 협업 또는 인수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스피커서 전자상거래로...돈 흐르는 곳에 AI 간다



“오늘 미세먼지는 어때?”  
“네. 오늘 미세먼지는 ' 좋음'이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장 친숙한 인공지능(AI) 기술은 스피커다. AI 스피커 시장은 최근 경쟁이 과열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의 '에코'는 2016년 1100만 대 판매됐고 2017년에는 그 2배가 넘는 2400만 대 이상이 판매됐다. 구글 또한 2016년 10월 '구글 홈'을 출시 후 1년 만에 판매량이 1400만 대를 돌파하며 아마존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스피커 '캘럭시홈'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이 AI 스피커에 집중하는 이유는 음성·언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AI 스피커에 내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비서는 음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음성·언어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데이터는 AI 비서의 성능 향상에 활용된다.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성인식과 자연어처리 기술이 향상되면 기업들은 더 정교하고 진화된 AI 엔진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소비자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를 선택하면서, AI 보급 확대에 이어지게 된다. 스피커는 AI를 완성시키고, 플랫폼을 확

장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업계는 AI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 기반 오프라인서비스)나 전자상거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하게 뉴스를 듣거나 날씨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주문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주문 이력을 살펴 상품을 추천하고, 다시 소비자의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또 AI를 접목한 O2O 서비스를 통해 금융, 배달, 세탁, 의료서비스 등에서 플랫폼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아

마존은 AI 스피커 에코에 전자상거래 기능을 추가했으며,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등 인터넷 기업들은 배달음식 주문, 식당 예약 기능 등을 추가하고 있다. 결국 돈이 움직이는 곳에서 AI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게 되면서 소비자는 지갑을 열고 기업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사업적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간의 혁신기술은 편리성에서 출발하지만, 진화를 거듭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는 데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AI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기법 및 상품 개발, 투자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AI의 발달은 자본주의 고도화에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중소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불합리”

## 외국인 근로자 배정 개선 촉구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분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용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일 올해 첫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1만6720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17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두고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

## 비용부담 크고 ‘노후 보장’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검토하겠다” 답변뿐 진척 없어 최저임금 차등 지급·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요구도

연금 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한환산업은 인도네시아 17명, 필리핀 1명 등 총 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한환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회사 부담금은 급여 지급 총액의 4.5%로 한환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별 평균 납부액은 월 19만 원이다. 18명을 다 합치면 매월 342만 원의 비용이 든다.

백상열 한환산업 이사는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나이 제한은 40세인 동시에 최대 4년 10개월을 일하면 일단 출국한 뒤

3개월 뒤 재입국해야 한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9년 8개월이다.

백 이사는 “장기 체류자도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부담분의 국민연금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노후 대비’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작년 11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개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그 당시 건의는 했으나 정부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매년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

해 애로 사항을 취합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었고, 그 가운데 국민연금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문제 외에도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 지급,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백 이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통, 업무 이해도 등이 내국인보다 오래 걸린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하면 국내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는 4년 10개월 간 총 4번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 실장은 “업체들은 숙련된 근로자를 희망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작년 9월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들며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주민센터에서는 현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혜숙 성남이주민센터 센터장은 “비용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사업주, 인권단체가 다 같이 모여 토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중소업체가 비용 문제에 허덕이면, 노후 설비로 산업재해를 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 악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 황창규, 韓기업인 첫 다보스포럼 IBC 초청

(KT 회장)

### 21~25일 방문 일정... 2년 연속 다보스포럼 참석 'ICT 활용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 성과 발표

황창규(사진) KT 회장은 2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한다.

KT는 21~25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19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황 회장 및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황창규 회장은 WEF 클라우드 슈바프 회장으로부터 다보스포럼 IBC에 초청위원(게스트) 자격으로 직접 초청을 받았다. IBC에 초청된 것은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하다.

IBC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위급 비즈니스 리더 100여 명이 구성된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하는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도 초청돼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교류하는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화 구조 형성’인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구 총재 등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황 회장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이다. 황 회장은 작년 다보스포럼에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을 제안한 바 있다. GEPP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감염병 정보를 파악해 각국 보건당국 및 개인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이다.

KT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지난 1년 동안 GEPP 도입 등 ICT를 활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다보스포럼에

서 GEPP 도입을 제안한 이후 GEPP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달 아프리카 케냐에서 GEPP 구축 착공식을 개최했다. KT는 가나에서도 보건청과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GEPP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을 끝마친 상태다.

황 회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대한민국 5G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다지는 한편 ICT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에 국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글로벌 리더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작년 11월 신설법인 3.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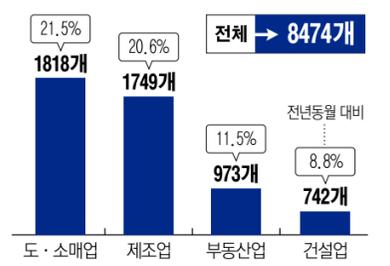
### 전기·가스·공기공급업 하락세 연간 설립법인 10만개 넘을 듯

지난해 11월 새로 만들어진 법인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설된 법인은 8474개로, 2017년 11월의 8805개보다 331개(3.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증가했으나, 공급 과잉에 따라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의 감소세가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818개(21.5%), 제조업 1749개(20.6%), 부동산업 973개(11.5%), 건설업 742개(8.8%) 순으로 설립됐다. 도·소매업, 부동산업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2.9%, 18.9% 늘었고 제조업은 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 2018년 11월 신설법인 업종별 통계



한편 작년 한 해 신설 법인 수는 1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1~11월 신설 법인은 9만3798개로 전년 동기 대비 4090개(4.6%)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신설 법인 수는 2011년 8679개, 2016년 8534개, 2017년 8602개로 집계됐다.

추세대로라면 작년 신설 법인 수는 10만 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만1178개(22.6%), 제조업 1만7265개(18.4%), 건설업 9435개(10.1%) 순이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 “회원 개인정보 보안강화” 빗썸, 카드형 OTP 발급

가상화폐(암호화폐) 빗썸이 회원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형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사진)를 제공한다.

빗썸은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회원들의 예약 신청을 받아 OTP카드를 순차적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예약 신청기간 이후에도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회원은 빗썸 홈페이지 해당 배너와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1만 원(보유 원화에서 차감)이며, 거래실적이 높은 일부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OTP카드는 서울 강남·광화문, 대전, 부산 등 빗썸 전국 고객센터 4곳에서 수령 가능하다. 사용자 인증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해주는 OTP카드를 사용하면 비밀번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빗썸 측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및 원화 출금 등 민감한 거래 시 비밀번호 노출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구글 OTP 사용 때는 OTP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는 휴대폰 분실 시 계정 탈취 위험이 있었지만, 빗썸 OTP카드는 잃어버려도 즉시 상담센터에 알려 폐기할 수 있어 탈취 위험을 줄였다.

인증단계가 간소화돼 이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로그인과 가상화폐 출금 때 이전에는 보안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SMS)인증까지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OTP카드를 사용하면 비밀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자체 OTP카드는 금융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증방식으로, 평소 구글 OTP 등 휴대폰 앱 사용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 전용 OTP카드 출시로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빗썸은 고객 중심 마인드로 앞선 서비스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빗썸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인 ISO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인 BS10012 등 공신력 있는 글로벌 보안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 “장수기업 육성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이하 등 획기적 개편 필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추문갑(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 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10개의 명문 장수기업을 포함한 업력 30년 이상 된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5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논문은 업력 30년이 넘는 중소기업 CEO의 평균연령이 63.3세로 세대교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실장은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의 사기 진작과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 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



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2011~2015년)이지만,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연평균 1만 7645건으로 한국의 280배에 달한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롯데시티호텔출산점.

사진제공 세븐일레븐

## 럭셔리 지갑 여는 소비자 백화점 새해벽두 '명품대전'

백화점들이 신년 초부터 해외 명품판매전을 펼친다. 불황 속에서도 해외 명품 판매는 고공행진 이어지자 백화점업체가 신고가 프리미엄 상품을 할인 행사로 소비자 끌어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현대백화점 패션대전

현대백화점은 해외패션상품군의 매출 신장률이 2016년 9.7%, 2017년에 11.3%

에 이어 2018년에는 18.7%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매출 가운데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롯데백화점에서 2016년 13.8%였던 명품 장르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18.5%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은 9.7%에서 18%대로 꺾음 뒀다.

이처럼 수입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백화점 3사는 고가 프리미엄 상품 할인 행사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9일부터 '해외명품대전'을 실시한다. 총 1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패딩 물량을 역대 최고 금액인 15억 원가량 준비하는 등 프리미엄 패딩에 집중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프리미엄 패딩 상품군의 매출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0% 신장했다.

롯데백화점은 '노비스', '파라점퍼스', '무스너클', '맥케이지', '페트레이' 등 총 8개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를 30~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파라점퍼스'의 146만 원대 '기네스 롱 패딩'을 50% 할인된 가격인 73만 4000원에, '페트레이'의 149만 원대 'PED 시리즈 패딩'을 44만 7000원에 판매한다. '줄리아나테

조', '퓨어리', '비니치오파자로' 등 모피 브랜드도 30~70%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줄리아나테'의 정사 238만 원의 퍼 청재킷을 90만 원에, '퓨어리'의 정사 820만 원대의 무스탕을 246만 6000원에, '비니치오파자로'의 정사 1200만 원 블루리버시블

베스트를 480만 원에 할인해서 내놓는다. 또 '발렌티노', '비비안웨스트우드', '스텔라 맥카르티', '모스키노', '마이클코어스' 등 주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40~8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7개 백화점과 2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2019년 첫 '해외패션대전'을 연다. 16일 무역센터점을 시작으로 점포마다 차례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무이·멀버리아·아르마니·폴레지오나·지미주·이자벨라랑·알렉산더왕·질샌더 등 총 180여 개 해외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고, 할인율은 10~50% 수준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 패션 상품군은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행사 시작일을 지난해보다 2주일가량 앞당기고, 추워진 날씨에 맞춰 브랜드별 아우터 상품 물량도 작년보다 30~50% 늘렸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모피 클리어런스' 행사를 마련했다. 강남점과 경기점,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진도모피, 동우모피, 사바피에 등 인기 모피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백미션 기자 only@

### 주휴수당·최저임금 인상 여파

# 편의점 '무인화 바람' 거세진다

인건비 부담 줄이고 효율성 높여 이마트24·CU 등 앞다퉈 도입 노인층 불편·상품 도난 등 취약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제한 속제



편의점 무인 점포 현황 (기준 : 2018년 12월)

업체	편의점 명칭	개수
GS25	스마트 GS25	17개
CU(씨유)	바이셀프	67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47개
이마트24	무인 편의점/하이브리드 편의점	147개

\*출처 : 각 사

'출점 절벽'에 직면한 편의점 업계에 올해 무인 매장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데다 출점 자율규약으로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스마트 편의점 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순증 점포수가 업계 1, 2위인 CU와 GS25가 각각 666개, 678개로 2017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CU의 경우 심야 영업 미실시 점포 비율이 2017년 10%대 초반에서 지난해에는 19%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편의점 업체들은 현재 테스트 매장 형태의 무인점포를 장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편과 도난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있다. 또 무인 편의점이라도 근처에서 관리 직원이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1인 근무로 운영되는 편의점 업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가 무인 편

의점 도입 및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다. 2017년 9월 처음으로 무인점포를 선보인 이마트24는 업계 최다인 1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서울조선호텔점과, 전주교대점, 서면티티호텔점 등 무인매장 9곳과 성수백영점과 성수본점, 청담본점 등 하이브리드 매장 5곳이다. 하이브리드 점포는 유인과 무인, 유인과 밴딩머신이 결합한 형태다.

이마트24 무인점포에는 셀프 계산대가 있고 소비자 스스로 결제할 수 있다. 도시락 등 상품에는 타임바코드가 부착돼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의 셀프 결제는 불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점포는 자정까지 유인 매장으로 운영되다 익일 새벽 6시까지의 밴딩 머신이 영업을 담당하게 된다.

CU(씨유)는 현재 총 6곳의 '바이셀프'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점포는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CU 바이셀프'로 상품 스캔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평상시 유인으로 운영되다가 심야시간에는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스마트 점포"라며 "현재 테스트 단계로, 시스템이 안정되고 보완되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시그니처'라는 이름으로 4곳의 스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호 매장인 롯데점단소재점과 4호점인 롯데시티호텔출산점은 가맹점 형태다. GS25는 1곳의 점포를 '스마트 GS25'라는 명칭으로 테스트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 마곡지구 LG CNS 본사에 있는 이 매장을 통해 GS25는 안면인식 결제 등 13개 정도의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완전한 무인 편의점이 아닌 무인 콘셉트의 스마트 점포"라며 "인근 매장에 인력이 무인 점포인 스마트GS25의 발주와 물건 입고, 청소 등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층 등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의 불편과 도난, 기물 파손 등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성년자들의 담배나 술 구매를 막기 어렵다는 단점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상용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인 매장일지라도 고객문의 응대와 상품 분실, 매장 청소, 상품 진열 등의 업무에 1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무인 매장 인근에는 직원이 배치돼 있어 무인 점포가 아닌 스마트 점포로 불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 편의점은 피크 타임 때 2~3명 근무하던 것을 1명으로 줄여주는 수준"이라면서 "동일 브랜드의 매장이 멀리 떨어져 있고, 각각 점주가 다르다는 점도 완전한 무인 편의점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객 인식이 개선되고 기술 보완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무인점포 가맹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주현 기자 jooh@

## 이마트, 자율주행차 배송 서비스 나선다

'토르 드라이브'와 시범운영 계약을 하반기 근거리 당일 배송할 듯

이마트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배송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이마트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기업인 '토르 드라이브'와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본격적인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전 진행되는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다. 우선 테스트 점포를 선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자율주행 배

송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근거리 당일 배송 서비스'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직접 포장해 차에 싣고 집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근거리에 한해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해 당일 배송해주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배송 서비스가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료품 체인인 크로거(Kroger)는 누로(nuro)와 손잡고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글로벌 유통업체인 월마트 역시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형태준 이마트 지원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유통과 첨단 IT기술 접목에 앞장서는 만큼 고객들에게 미래 쇼핑 환경을 앞당겨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르 드라이브'는 국내 최초의 도심 자율주행차량 '스누버'를 개발한 서울대 출신 핵심 연구진이 모여 만든 신생기업으로, 최근 미국 유통 체인과 손잡고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배송 시범 서비스에 성공한 바 있다. 백미션 기자 only@

## 올 '쇼핑 트렌드'는 홈코노미·하비슈머...

육선 '10대 키워드' 선정

'나 혼자 스스로' 경험 소비에 초점 건강용품·친환경 상품 인기 끌 것

올해 쇼핑 트렌드로 '홈코노미', '하비슈머', '뉴트로' 등이 꼽혔다.

육선은 세대별 소비 형태와 가치관, 사회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홈코노미 △하비슈머 △콘텐츠 크리에이터 △젠더리스 △뉴트로 △홈 △케어 △푸드 △스탠딩워크 △에코 패키징 △업사이클링 패션 등 총 10대 소풍 키워드와 히트예감 상품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집이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휴식,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집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홈코노미(Home economy)'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했다.

고강도 걷기 운동기구 일립티컬 등 '홈

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해 무선전기포트, 프리미엄 찻잔 등 '홈카페 용품', LED마스크와 같은 '홈 뷰티 디바이스'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퇴근 후 취미활동을 즐기는 '하비슈머(Hobby consumer)'가 늘면서 드로잉이나 캘리그라피 용품부터 클래식 기타 등 악기 용품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다양화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creat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인 영상 제작에 쉬운 짐벌과 액션캠 등 영상제작 용품이 히트예감 상품에 선정됐다.

육선 마케팅실 서은희 실장은 "올해는 성별, 세대, 시간의 경계를 허물며 '나'의 만족을 위한 소비 활동을 넘어 '나 혼자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소비 형태가 확대될 것"이라며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와 노인 세대 맞춤형 건강용품과 친환경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미션 기자 only@

# '애플 쇼크'에... 코스피 싸졌다

상장사 실적·순자산 감소 폭 커  
PER 9.36배 금융위기 후 최저  
"저평가... 밸류에이션 해석 주의"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애플 쇼크'로 급락한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36배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 9.20배 이후 9년 9개월 만의 최저치다. 주가자산비율(PBR)도 0.85배로 10여년 만에 가장 낮았다.

PER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격을 주당순이익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PER 및 PBR

종목명	4일 증가	PER	PBR
삼성전자	37,450	6.24	1.33
SK하이닉스	58,300	3.87	1.26
셀트리온	220,000	69.84	11.55
현대차	119,500	7.97	0.49
LG화학	330,500	13.03	1.6
SK텔레콤	279,500	7.64	1.26
한국전력	34,300	16.96	0.31
POSCO	239,000	6.93	0.48
NAVER	125,500	23.59	4.34

※출처: 한국거래소

나는 값이다. 통상 PER가 낮을수록 원래 가치보다 저평가돼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단 의미다. PBR 역시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는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것을 뜻한다.

코스피의 PER와 PBR가 글로벌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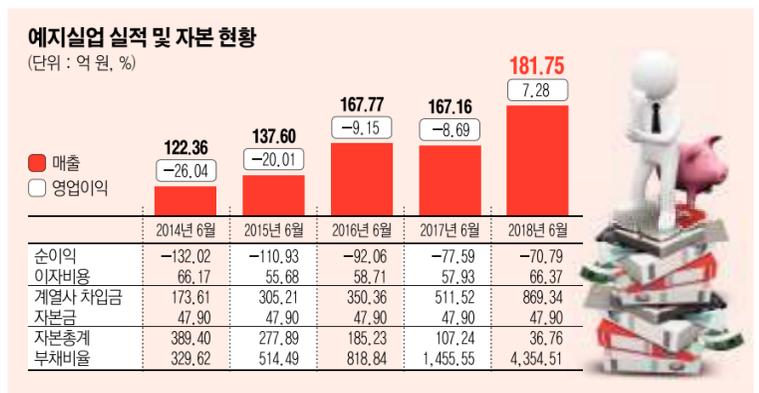
위기 수준까지 하락한 것은 코스피 상장사들의 주가 하락 폭이 실적이나 순자산 감소 폭보다 컸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은 PER가 코스피 평균 대비 낮았고 PBR는 소폭 높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PER와 PBR가 각각 6.24배, 1.33배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3.87배, 1.26배, 현대차는 7.97배, 0.49배로 조사됐다. 다만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PER 69.84배, PBR 11.55배를 기록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단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기계적인 밸류에이션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며 "밸류에이션 척도로 보면 단기적으로 유력한 코스피 1차 지지선은 1900~1950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베어스타운 운영' 예지실업, '이자 갚기' 기진맥진

매출 확대·영업의 개선 불구  
작년 계열사서 2차례 더 빌려  
매년 이자비용 50억~60억  
부채비율도 4354%로 '경중'



이랜드그룹에 피인수된 베어스타운 운영사 예지실업의 5년 차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세를 보였지만 실적 회복세가 더딘 데다 계열사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이 커 순손실이 누적되면서 일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예지실업은 최근 이랜드파크로부터 6.12%의 이자율로 빌린 27억 원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예지실업이 이랜드파크에서 빌린 차입금은 총 290억 원이다.

이랜드파크는 앞서 2013년 예지실업 지분 50%를 48억 원에 현금 취득한 바 있다. 1984년 12월에 설립된 예지실업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스키 리조트 '베어스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인수 당시 현 경영진이 올해까지 경영하고 성과에 따라 2차로 나머지 지분 48.8%를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적은 신통치 않다. 6월 결산법 인인 예지실업의 5년간 별도기준 매출 추이를 보면 2014년 122억 원에서 이듬해 137억 원, 2016~2017년 167억 원, 지난해 181억 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영업이익도 2014년 26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7억 원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다. 순이익 역시 2014년 132억 원 손실에서 지난해 70억 원까지 5년 연속 적자를 냈지만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이자비용 등 과도한 금융비용 지출도 순손실을 키우는 주요인이다. 예지실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2014년 39.42%에서 지난해 53.62%로 늘었다. 단기차입금 대부분은 그룹 계열사에서 빌렸다. 작년에 이랜드

월드와 이에셋투자개발에서만 각각 171억 원, 201억 원 등을 추가로 빌리는 등 계열사 차입금만 2014년 173억 원에서 작년 869억 원으로 불었다. 매년 나가는 이자비용만 50억~60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최소 60억 원 이상이어야 순손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잇따른 순손실은 안정성도 훼손하고 있다. 예지실업의 자본금은 47억9000만 원이다. 자본총계는 잇따른 순손실에 2014년 389억 원에서 작년 36억 원까지 줄었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일부 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부채비율도 329.62%에서 지난해 4354.51%로 급격히 증가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계약·보험 CRM 대행 노하우 살려 바이오 신약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 CEO 인터뷰

성상운 한국코퍼레이션 대표



한국코퍼레이션이 고객관계관리(CRM·콜센터 등 비대면상담) 솔루션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 플랫폼(바이오텍)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제약·보험 등 관련 기업의 CRM 대행을 하면서 축적된 업종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를 신사업으로 선정했으며 바이오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인수를 첫 행보로 택했다.

성상운한국코퍼레이션대표이사는 서울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당사의 기존 사업은 CRM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라며 "아시아퍼시픽 인수는 기존에 영위해 온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CRM사업과 물질 개발에 유사성이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수 대상은 게놈바이오로직스 아시아퍼시픽(이하 아시아퍼시픽)이다. 아시아퍼시픽은 현재 개발 중인 GEN121의 임상 2상을 종료하면 기술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게놈바이오로직스(이하 게놈)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신약개발 시 정확한 검증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 파트너는 존슨앤존슨, 바이엘 등이며, 관계사인 아시아퍼시픽과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성상운 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콜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과 관련한 빅데이터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코퍼레이션은 게놈의 아시아 총판을 담당하는 아시아퍼시픽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놈과 아시아퍼시픽이 각각 개발 물질 관련 권리를 50%씩 보유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놈의 플랫폼 기술은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 시간 단축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게놈과 아시아퍼시픽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심근질환 치료제 'GEN121' 임상 진행 과정과 개발 기술력이다. 현재 개발 단

심근질환 치료제 'GEN121' 개발  
아시아 총판 '아시아퍼시픽' 인수  
임상 2상 종료면 기술 수출 추진

계는 전임상을 마치고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다. 임상 지역은 독일과 벨기에 지역 중 한 곳을 두고 조율 중이다.

GEN121 개발은 AI 및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다. 게놈사의 RNA 간섭(RNAi) 기술은 유전자의 전사·투사 과정을 차단해 유해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유전자 전이를 차단토록 설계됐다. 아시아퍼시픽은 기존 의학, 약학, 유전자학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나이, 인종, 성별, 개인별 유전 형질에 따른 맞춤형 심근질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GEN121은 기존 약물 치료나 수술보다 치료 방법이 간단하다. 치료비 부담 또한 크지 않고, 특정 유전자에 맞춰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성 대표는 "기존 신약 개발의 임상 시험은 1상부터 2상까지 임상 승인 서류 심사, 환자 모집, 효능 안정성 검증 등 통상 5~6년의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GEN121은 바이오 신약 임상 시험은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2년 안에 임상 1, 2상을 동시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1상과 2상이 끝나면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수출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바이오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독일 기관은 임상 2상 종료 시 1조 원을 넘는 밸류(가치)를 가질 것으로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 kjm@

# 석천·흥덕 등 오너家 현금창고 역할

## 중견그룹 일감돌보기

### 고려제강그룹

임직원 2~3명 '페이퍼 컴퍼니'  
매출 대부분 내부거래로 발생  
계열사 임대료·배당이 수입원

고려제강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외에 주력 계열사의 지분 확보를 통해 배당금과 지분평가이익 등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배당을 통해 오너 일가의 부를 늘려주는 현금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려제강그룹은 1945년 설립한 고려상사가 모태다. 1969년 고려제강으로 상호

를 변경했다. 약기용 와이어, 타이어보강재(비드와이어), 교량용 케이블 등 제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1978년 고려강선, 1989년 흥덕산업 등을 인수하며 규모를 키웠다. 2017년 말 기준 그룹 총자산은 3조5829억 원으로, 12개 계열사를 둔 그룹으로 성장했다. 상장사로는 1976년 4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고려제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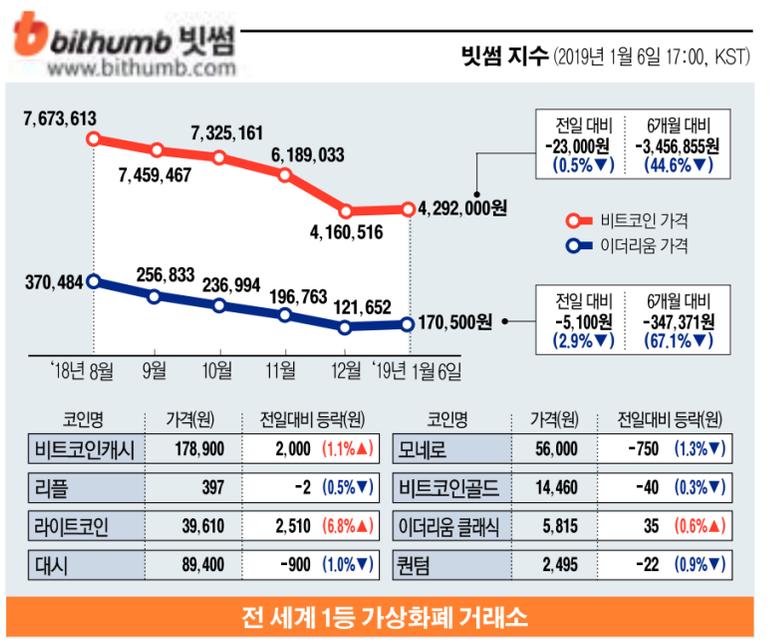
그룹 내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속하는 회사는 고려제강 지분을 가진 이들 3개 계열사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50~100%에 달한다. 임대료와 배당 수익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우선 석천의 경우 1992년 스틸코드와 비드와이어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2년 투자와 제조 부문이 인적분할돼 사업 부문은 흥덕케이블과 합병했고, 투자 부문은 2015년 말 흥덕정밀·흥덕개발을

흡수 합병하고 현재의 석천이 됐다.

흥덕은 석천과 마찬가지로 2012년 5월 투자와 제조 부문이 분할됐으며 같은 해 7월 흥덕정밀·흥덕스틸코드·흥덕정밀을 흡수 합병했다. 현재는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주력 수입원이다. 이에 2013년부터는 내부거래 비율이 평균 90%를 웃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3개 회사 모두 임직원이 2~3명에 불과한 서류상의 회사에 가깝다는 점이다. 주수가 모두 '서울 중구 장교빌딩 21층 14호'로 같다. 석천과 흥덕의 경우 무형자산 상각 영향으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거의 매년 배당을 실시했다. 키스와이어홀딩스는 2011~2017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년 5억 원씩, 흥덕은 2013~2017년에 매년 19억 원가량을 배당했다. 석천도 2011~2012년에는 25억~28억 원을, 최근 2년간은 6억 원가량 배당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공공기관·방송국 이전 부지 분양 흥행 이어갈까

전국에서 도심 속 숨은 요충지의 화려한 변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웨딩홀, 방송국, 공장 등의 시설이 헐리거나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들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 이전 부지는 대부분 대로변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 이전부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좋은 성적으로 청약이 마감됐다.

**대부분 역 주변 인프라 조성 신세계, 대구 '빌리브 스카이'**

**HDC '고척 아이파크' 등 주목**

**여의도MBC 사옥은 오피스텔로**

지난해 6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가스공사 이전부지에서 분양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는 33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934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32.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또한 지난해 10월 코오롱글로벌이 대

구광역시 수성구 예전 이마트 시지점 부지에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시지 코오롱하늘채'는 평균 17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계약 4일만에 100% 계약이 마감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들 이전 부지는 주로 도심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심 인프라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개발사업은 재개발처럼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웨딩홀, 방송국, 공공기관 등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는 단지가 속속 분

양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곳은 신세계건설이 1월 분양할 예정인 '빌리브 스카이'다. 이 단지는 예전 알리앙스 웨딩홀 부지(대구 달서구 감삼동 141-5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 바로 앞에 48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지어지며 아파트 504가구(전용면적 84~219㎡), 오피스텔 48실(전용 84㎡)로 구성된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월에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인 '고

척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2214가구(전용면적 64-79㎡)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가깝다. 이 부지에는 대형 쇼핑몰, 스트리트형 상가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옛 여의도MBC(문화방송) 사옥이 1397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로 거듭난다.

신영·NH투자증권·GS건설로 구성된 신영 컨소시엄은 2019년 상반기 착공해 7월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새해에도 분양 아파트 쏠림... 주택 거래는 '퐁퐁'

**주변 시세 60% '위례포레자이'**  
**487가구 평균 경쟁률 130대 1**  
**고분양가 지적 단지도 흥행몰이**

기해년 새해 수도권 분양시장은 활짝 기지를 폈지만 기존 재고 주택거래는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일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 3곳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주변 시세의 60% 수준 분양가로 시장의 기대가 컸던 '위례포레자이'는 '로또 청약'답게 1순위 487가구 모집에 6만3472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이에 평균 경쟁률 130.33대 1을 기록했으며, 3가구 모집하는 전용 108㎡T 평형에서 최고 경쟁률(242.7대 1)이 나왔다.

흥행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됐던 위례포레자이와 달리 가우똥하는 시선이 일부 있던 나머지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로 무난히 1순위 마감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평균 분양가가 당초 예상된 2300만 원이 아닌 2600만 원으로 나오며 고분양가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도 249가구 모집에 8307명이 몰려 평균 33.3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동북권 내 집 마련 수요가 여전히 들끓고 있음이 청약 흥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경기 남양주에 들어서는 '다산신도시자연앤자이'는 왕숙지구에 3기 신도시 조성이 결정되면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와 공급 과잉 우려 속에서 청약을 진행했다. 결과는 1순위 208가구 모집에 1만689명이 몰린 51.39대 1 경쟁률로 나타났다.

수도권 분양시장의 흥행이 무색하게 재고주택시장은 침체 일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주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9-13 대책으로 강화된 정부 규제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망세가 재고시장 아파트 수요를 끌어내리고 있다.

또 청약제도도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면서 수도권 실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쏠리는 흐름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주택자는 추첨제 비중이 규제지역의 경우 크게 낮아졌지만, 무주택자는 청약당첨 문호가 더 나아진 데다 신축아파트는 분담이나 감가상각에서 유리하다"며 "청약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재고 주택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일 최종 발표된다. 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해 소유자들의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최대 3배 '경충'

**정부, 지역·가격별 형평성 맞춰**  
**강남·마용성, 최대 200% 상승**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단독주택은 50~55%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졌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60~70%에 달하는 반면 서울 일부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일이 7일 종료되는 가운데 단독·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7일까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2~3배에 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 저가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낮아 지역별 인상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국 418만 가구의 단독주택과 1928만 가구의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불합리함을 고려해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한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도 급등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일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33대 1

대림산업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가 평균 33.36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했다.

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의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 249가구(특별공급 제외)에 8307명이 몰리며 평균 33.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51㎡가 2가구 모집에 559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279.5대 1)을 기록했다.

이외 △전용 59㎡A 32.04대 1(54가구 모집 1730건 접수) △전용 59㎡B 21.75대 1(20가구 모집 435건 접수) △전용 59㎡C 18.61대 1(23가구 모집 428건 접수) △전용 74㎡ 16.94대 1(71가구 모집 1203건 접수) △전용 84㎡A 121.29대 1(7가구 모집 849건 접수) △전용 84㎡B 35.35대 1(55가구 모집 1944건 접수) △전용 109㎡ 68.18대 1(177가구 모집 1159건 접수)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11일 당점차 발표 이후 22~24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용두5구역 사업지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1-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금주의 분양캘린더

1월 둘째 주 전국에 278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주 수도권에 1640가구, 지방에 1149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 '수지스카이뷰푸르지

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한신더휴',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동화아이위시' 등이다.

당점차 발표는 10곳에서 진행된다. 대구 동구 신암동 '이안센트럴D'를 시작으로,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자이아파트',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청계센

트럴포레' 등이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7곳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디에스' 등이다.

2개 단지가 견본주택 개관을 준비 중이다.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순삼일파라뷰 에듀시티(민간임대)'가 방문객을 맞는다.

날짜	구분	시	구사군	읍면동	아파트명
1/7 (월)	접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2순위
					경북
1/8 (화)	접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우민늘푸른아파트 1순위
					대구
1/9 (수)	접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우민늘푸른아파트 2순위
					대구
1/10 (목)	접수	경기	용인시	신봉동	수지스카이뷰푸르지(C6) 1순위
					인천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 서울 아파트, 새해 첫 주 매매 겨우 9건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영향**  
**작년 875건 대비 큰폭 줄어**

사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계약일 기준으로 매매를 집계한다.

이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1월 1~4일) 거래량은 875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신고건수도 작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나온 이달 아파트 매매 신고건수는 16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의 신고건수는 1만198건으로 1만 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올해 1월의 경우 일평균 신고건수가 약 41건인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신고량은 1500건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조용한 새해를 맞이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는 단 9건에 그쳤다. 이 중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에서 절반인 4건이 거래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1건, 송파구에서 2건이 집계됐다. 그외 구로·노원·마포·성북·영등포구에서 한 건씩 거래가 성

서희희 기자 jhsseo@

# 정지선·횡단보도 없어도 황색등 켜지면 후 멈춰야

대법 “정지 안하고 직진, 사고넌 운전자 신호위반” 원심 뒤집어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어도 교통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우선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표 씨는 2016년 말 경기도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도로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 씨 측은 도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주행했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지면 교차로 앞에 정지하거나 이미 진입했을 경우 신속히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다.

1, 2심은 “도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만큼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표 씨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더라도 황색의 등화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황색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추억을 닦아요” 인파 몰린 산천어축제

“2019 화천산천어축제” 개막 이틀째인 6일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 화천군 화천천 축제장을 찾아 겨울 추억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 유성기업 노사, 갈등 8년 만에 화해

사측, 소송취하·임금 소급지급  
노조, 파업 중단 정상근무 돌입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사 갈등 8년 만에 일부 쟁점에 합의했다.

유성기업은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한 산재 요양 취소 소송 5건 취하, 관련자 치료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유성기업은 타결 임금을 소급 적용해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유성기업의 임금 미타결분은 81억 원이며 임금소송분(원금+이자)은 111억7000만 원이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전면 파업을 중단하고 1일부터 근무에 복귀하겠다고 알려

왔으며 3일부터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5년 연속 적자로 생존 위기를 겪는 유성기업 위기를 극복해 노사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금속노조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특정 노조 해산과 노조 지목 회사 임직원 및 관련자 퇴사 등은 불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1년 5월 18일 파업에 돌입,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하면서 노사 갈등이 시작됐다.

김진희 기자 jh6945@

## 직접 일정 만드는 ‘DIY 패키지’ 뜬다

2019 해외여행 트렌드

여행 ‘큰손’ 중장년층에 주목  
교육 접목 ‘에듀테인먼트’도

2019년 가해년을 맞이한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늘어나는 수요만큼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해외여행 트렌드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투어는 2018년 해외여행객 약 700만 명의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2019년 해외여행 7대 트렌드를 예측했다.

먼저 ‘탈(脫) 패키지 상품이 뜬다’. 2019년 패키지 여행시장에서는 연령대나 관심사 기반의 소셜형 패키지 상품, 여행객이 직접 만드는 DIY 패키지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항공권을 따로 예약하고 해외 현지에서 투어 그룹에 합류하는 여행객들은 지난 5년간 연평

군 11%씩 증가했다. 여행 일정을 취향껏 조립하는 스마트한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올해에는 패키지 여행시장도 여행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개별 맞춤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할 전망이다.

자유여행자들의 ‘현지 가이드 투어’도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인문학 예능이 인기를 끄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가이드를 찾는 여행객들의 니즈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하나투어는 ‘여행시장의 큰손은 활동적인 중장년층’ ‘세대 공감 여행, 가족애 발견’ ‘키즈 시장의 성장, 에듀테인먼트 여행에 주목하라’ ‘여행스타그램? 이젠 유튜브래블 (Youtube + Travel) 시대’ 등을 주요 트렌드로 선정했다. 또 하나투어는 올해 주목할 여행지로 백두산, 스페인, 베트남 푸꾸옥, 미세렌지가 없는 정정 국가(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브루나이) 등을 꼽았다. 김소희 기자 ksh@

‘드루킹 뇌물’ 500만원 받은  
김경수 지사 前 보좌관 징역

‘드루킹’ 김동원(50)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장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만 원을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은 국회의원에 민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의원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김동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신뢰 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500만 원을 반환한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 윤한슬 기자 charmy@

#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지만 오전 내내 정신이 멍하다면?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게 된다면?

**1**

일부 일을 무리는  
프기지 않음

**2**

일찍 일어나는  
리듬 형성

**3**

수면 유량별로  
기본 유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수면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리듬에 귀 기울이세요!

##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2차)

**1. 입찰물건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	최저입찰금액 (공시지가 80%)	비고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48-8	인	110	929,612,720원
	148-10	대	5	
	394	인	698	
	445	인	235	
	446	인	14	
	447	인	444	
	신53-9	인	1	
	신54-8	인	317	
	신54-15	인	30	
	신54-19	인	494	
	신54-26	인	78	
	신54-27	인	716	
	신54-29	인	21,045	
	신54-32	인	7,093	
	신54-33	인	3,447	
	신54-38	인	3	
	445-4	인	1	
	신54-18	인	1	
	신54-34	인	98	
	457	전	159	
458	전	2,390		
총21필지		37,379		

\* 상기 21필지 토지의 입찰은 일괄입찰방식이며, 21필지 토지에 대한 전체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매각 진행 일정**

① 입찰서 등 관련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7(월) 10:00 - 2019. 1. 14(월) 16:00  
-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8층(삼성동, KB우준타워)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상기 접수시한까지 도착 기준임)  
- 제출서류  
○ 입찰서(별도 양식 없음)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② 낙찰자 선정 방법  
- 개찰일시 : 2019. 1. 14(월) 17:00 이후  
- 개찰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8층(삼성동, KB우준타워)  
- 유효한 1인 이상의 입찰자 중 최저입찰금액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③ 향후 진행 절차  
-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등 매각 세부 사항은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함

**3. 기타사항**

- 매각진행일정 및 매수자 선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본 매각절차는 매도인의 의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변경, 철회가 가능함  
- 매각물건의 공부 및 실물과의 구조, 면적 등의 상이, 행정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전 현지답사 및 행정청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낙찰물건에 대하여는 현재 의 상태로 명도 함  
- 본 공고는 부동산 매각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 입찰서 접수 기간 이후 추가 접수 여부의 판단, 낙찰자 선정 및 매각여부에 대한 결정 등 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매도인의 고유권한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 본 건 진행과 관련된 기타 세부내용은 (Tel. 02-553-7410)로 문의바람

2019. 1. 7.

**쌍령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엔진 식은 '車이나' ... 신차 판매량 28년 만에 내리막

## 변곡점 맞은 中 자동차 산업

세계 자동차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아온 중국 시장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 수요 침체로 앞다퉀 감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동을 멈춘 공장들로 인해 기업들은 과거 지나친 설비투자 경쟁의 트라우마에 빠져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침체로 일부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불필요한 공장들을 떠난게 됐다며 이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한때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블루오션이었다. 이에 업체들은 너도나도 중국 현지에 공장을 새로 지었다. WSJ는 대표적인 업체로 프랑스 푸조, 미국 포드자동차, 한국 현대자동차를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침체된 지금, 이들 업체가 중대 결전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투자를 그냥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투자할 것이냐.'

UBS그룹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폴 공은

글로벌 업체 앞다퉀 설비 투자 中 시장 소비 침체로 위기 직면 현재 공장 가동률 60%대 그쳐 이 와중 32곳서 EV 공장 준비 친환경 정책, 설비과잉 부추겨

"돌이켜보면 (공장 신설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며 "누구나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을 잃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판매량이 연간 두 자릿수를 기록할 때도 많았다. 2016년에는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800만 대에 달해 미국의 1750만 대를 추월했다.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앞다퉀 중국에 진출, 중국 현지 기업과 함께 공장을 건설했다. 전기자동차(EV)를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캠페인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경쟁은 한층 과열됐다.



중국 텐진 항구에 신차들이 즐비해 서 있다. 텐진/로이더연합뉴스

일부 기업은 이런 열광 속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지만, 사실은 성장이 멈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7년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3% 증가에 그쳤고 2018년 1-11월은 2% 감소했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중국 공장에서는 연간 4300만 대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2018년 생산 대수는 2900만 대를 밑돌 전망이다.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격이 가장 큰 건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기업이다. 포드의 경우, 중국 판매 대수는 2016년 127만 대를 정점으로 2017년에는 6% 감소했다. 작년 1-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34%나 줄어든 69만5028대에 그쳤다. 세단 '토러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엣지'를 생산하는 저장성 항저우의 포드 공장은 한때 생산의 메카였지만 현재는 놀고 있는 공장이 태반이다. 근로자들의 교대 근무는 한 달에 수회로 줄었다. 일부 노동자는 한 달에 220달러밖에 받지 못해 대부분이 부업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다.

현대차도 중국에서 여덟 번째 승용차 공장을 2017년에 신설했지만 판매는 신통치 않다. 푸조도 한창 호황기 때 현지에서 공장 신설을 계속했다. 동평자동차그룹과 합작으로 생산하고 있는 시트로엥과 푸조 판매 대수는 2015년 70만5000대로 고점을 찍었으나 2018년 1-9월은 20만5000대로 쪼그라들었다. 현지 푸조 공장 4개 중 2개는 10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개는 일부

만 가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V의 생산설비는 더욱 과잉이 될 조짐이다. EV대국을 지향하는 중국 정부의 캠페인 영향으로 현지 기업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EV 공장을 준비 중인 곳은 적어도 32곳, 생산 능력은 750만 대가 넘는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50만 대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상하이에 건설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상하이에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 폭스바겐은 EV와 휘발유차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2018년에만 3개나 신설했다. 포드는 새로운 합작 파트너인 중타이거차와 함께 중국에서 여덟 번째 승용차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10만 대로 보고 있다.

UBS의 공 애널리스트는 일본 스즈키가 2018년 중국에서 전격 철수한 것에 주목, "과잉 설비를 가진 다른 회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74-191호(2018.11.14~2019.11.13)

KYOBO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업종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핫트랙스,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3

주소 등  
정보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인증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유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블루오션 中시장, 침체된 까닭은?

환경 정책·소비 위축·과잉 생산 맞물려 너도나도 "감산"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앞다퉀 감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신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 11월 까지 5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샤이 신문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신차 판매량은 2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자동차 공장 전체 가동률이 60%대에 머물렀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 관련 산업과 고용 등에 영향을 끼쳐 중국 경기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

판매 부진에 빠진 미국 포드자동차와 한국 현대자동차에 이어 일본 닛산자동차와 마쓰다도 20% 감산하기로 했다.

닛산은 12월부터 다렌과 정저우 등 주요 공장 세 곳에서 감산을 시작했다. 올 3월까지 생산 설비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3만 대 전후로 생산을 줄여 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마쓰다도 새해 1~6월 생산량을 작년 같은 기간 생산량보다 줄이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중국 기업에 생산을 위탁한 것을 포함해 감산 폭은 최대 20%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지난해 1~11월 판매량이 34% 감소했고 공장 가동률은 50%로 떨어졌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도 소형차 공장 생산 대수가 11월에 40% 감소했다.

현대차는 2017년부터 감산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현지 부품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가동률은 60% 정도다.

감산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부의 환경 정책과 소비 위축, 과잉 생산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중국은 대도시의 교통 정체 완화와

대기 오염의 역제를 위해 휘발유 차량에 번호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작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하이난 등 주요 9개 도시가 참여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액 소비가 위축돼 지방 대도시에서도 신차 판매가 크게 줄었다. 2017년 말 중국 정부가 소형차에 대해 감세 정책을 내놓자 수요가 소형차로 몰리면서 신차 판매율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공장 가동률은 5년 전 70%대였지만 최근 60%대 정도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연간 생산 능력은 2018년 말 4000만 대에서 2025년 4500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과잉 생산을 막을 대책을 내놨다. 2019년부터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공장 가동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지 않으면 휘발유 자동차 신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동차는 중국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GDP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국 대리점과 유지 보수 서비스 등을 포함하면 GDP의 10%에 달한다. 자동차 판매·생산 동향이 중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중국은 세계 신차 판매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감산에 나서면 부품과 소재 등의 공급망을 통해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자동차 판매가 정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존재를 잃을 우려도 있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 전세계 190개국 14억 회원... '게임 한류'의 주역

## 게임 속속 ③ 넥슨

1996. 4 바람의 나라 ▶ 2001. 10 크레이지 아케이드 ▶ 2003. 4 메이플스토리 ▶ 2004. 6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 2005. 8 던전애파이터, 서든어택

### 게임하이·네오플 등 유망 게임사 인수... 우수 IP 확보

#### 공격적 M&A로 성장 발판

대한민국 인터넷 및 게임 산업의 시작을 함께한 넥슨은 지난 25년간 꾸준히 우수한 IP와 신시장 발굴로 게임 산업을 이끌어 왔다.

텍스트 머드 게임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 한국 게임시장에 1996년 '바람의나라'를 선보이며 그래픽 온라인 게임의 장을 열었다. 바람의나라는 세계 첫 상용화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게임이다. 이후 1999년 '퀴즈퀴즈'로 온라인 게임에 부분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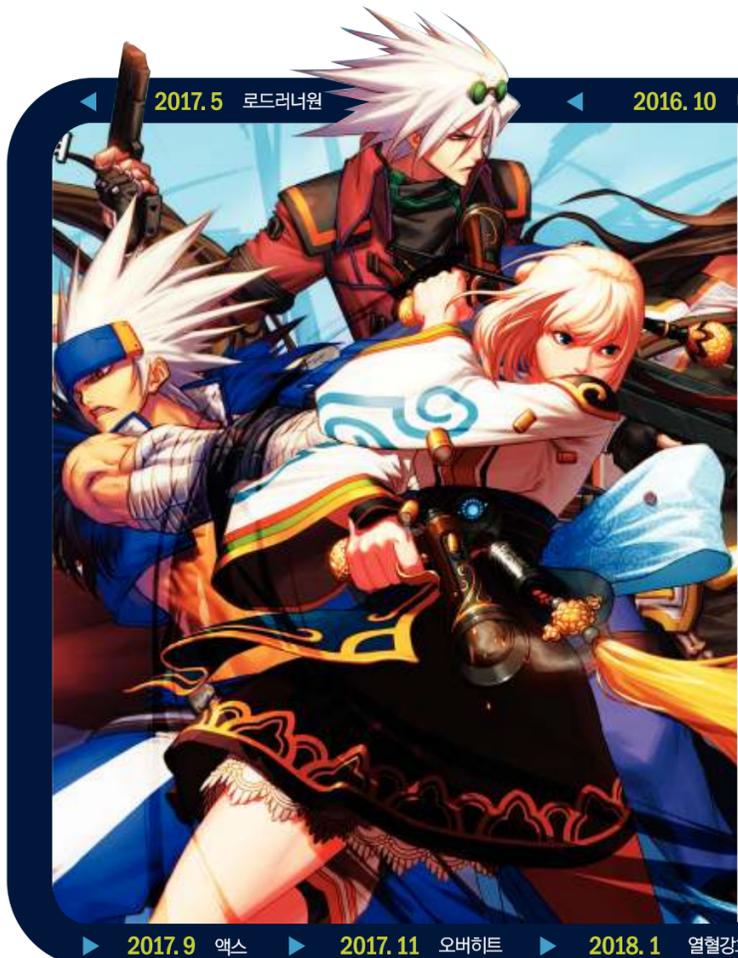
2000년대 들어와서는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엔비', '카트라이더' 등을 선보이며 캐주얼 게임 붐을 이끌었다. 특히 카트라이더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24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게임 한류를 주도했다. 현재 '카트

라이더'는 전 세계 3억8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넥슨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며 한국 게임의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증명해 왔다.

넥슨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해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4년에는 '메이플스토리'의 개발사 '위젯'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우수 IP 확보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는 넥슨의 현지화 및 서비노하우를 결합해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약 1억8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타이틀로 성장했다. 이어 2008년에는 넥슨의 간판 타이틀로 성장한 '던전애파이터' 개발사 네오플을 인수했다. 던전애파이터는 화려한 이펙트와 타격감으로 중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2014년 최고 동시 접속자수 500만 명을 돌파해 중국 최고의 온라인 액션 RPG로 자리매김했다. 던전애파이터는 현재도 넥슨의 주요

해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임하이(현 넥슨지티) 역시 2010년 넥슨에 인수된 후 FPS게임 '서든어택'의 장기 흥행을 이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자회사 넥스레드를 통해 모바일 MMORPG 'AxE(엑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2016년에는 서구권에서 큰 인기를 끈 소셜 게임 '도미네이션즈'의 개발사 빅휴즈게임즈를 인수해 북미 등 서구권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태국의 게임 퍼블리셔인 iDCC(i Digital Connect Co., Ltd.)의 지분 49%를 인수한 뒤 사명을 '넥스 타이랜드'로 변경하고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공략을 본격화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화형 스토리텔링 게임 개발사 '픽셀베리 스튜디오', 스웨덴 개발사 '엠바크 스튜디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IP를 확보하고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7. 5 로드러너원 ◀ 2016. 10 메이플스토리M ◀ 2011. 6 사이퍼즈 ◀ 2010. 1 마비노기 영웅전 ◀ 2009. 1 바블파이터

### 2017년 매출 2조 돌파... 창립 이후 1만 배 성장

#### 국내 대표 게임사로

넥슨은 다양한 타이틀의 흥행과 성공적 투자의 성과에 힘입어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해왔다.

창립 첫해인 1994년 약 2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주요 게임들의 흥행에 힘입어 10년 만인 2004년 1110억 원으로 성장했다. 네오플을 인수한 뒤 중국 시장에 던전애파이터를 선보인 이후 2008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20% 수준의 성장을 이뤘다. 2017년에는 창립 이후 사상 최대치인 매출 2조2987억 원(2349억 엔)과 영업이익 8856억 원(905억 엔)을 기록했다. 이는 창립 첫해 매출 대비 약 1만 배에 달하며, 2008년 매출 4509억 원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해외 시장의 호조가 성장을 견인했다. 중국 지역에서는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던전애파이터가 꾸준히 기대치를 상회하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넥슨의 우수한 라이브 개발 및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춘절(음력 새해 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중국의 주요 휴가 시즌을 타깃팅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꾸준히 성공시켜온 결과다.

출시 15주년을 맞는 메이플스토리 역시 탄탄한 글로벌 유저층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권 시장에서는 출시 3주년을 맞은 '도미네이션즈'가 최근까지 누적 매출 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25일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메이플스토리M'의

경우 출시 100일 만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외 누적 다운로드 2000만 건 달성에 육박하기도 했다.

넥슨은 이 같은 다양한 히트작들과 성공적인 M&A를 기반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 14억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 90종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했다.

창립 초기 십여 명에 불과했던 직원 수도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약 56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한국과 일본, 북미, 태국, 대만 등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2011년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약 8조 원 규모에 달했던 시가 총액은 현재 약 16조 원 규모에 달한다.

▶ 2017. 9 엑스 ▶ 2017. 11 오버히트 ▶ 2018. 1 열혈강호M, 야생의 땅:듀랑고 ▶ 2018. 2 메이플블리츠X ▶ 2018. 6 카이저

### 바람의 나라·마비노기... 추억의 명작 '모바일 귀환'

#### 올 신작 라인업 동성

넥슨은 지난해 지스타2018에서 선보인 클래식 명작 IP와 신규 IP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한층 더 견고히 할 계획이다.

우선 넥슨의 첫 출발점인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지금의 넥슨을 있게 해준 명작 IP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선보인다.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의 첫 모바일 게임 '바람의나라: 연'이 지스타에서 공개됐으며 감성적이고 참신한 생활 콘텐츠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는 '마비노기'의 모바일 게임 '마비노기 모바일'도 베일을

벗었다.

이 외에도 넥슨은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모바일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 M' 등 넥슨을 상징하는 다양한 IP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시해 유저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또 넥슨의 색채가 묻어나는 새로운 자체 개발작과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퍼블리싱 타이틀도 선보일 예정이다. 네오플의 '스튜디오포투'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인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두 캐릭터 간 협력 플레이를 통해 탐마다 배치된 퍼즐을 풀어나가는 '네 개의 탑'의 시연 버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 수준 높은 퀄리티의 하이엔드 MMORPG '트라하'로 모바일 MMORPG 시장에 흥행 열기를 지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 대표는 넥슨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주 대표는 4일 "지금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들려는 각오를 다지면서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속고 중에 있다"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돈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할 것"이라며 넥슨 매각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 “AR·VR, 고객에 한 걸음 더...5G 상용화가 기회”

## SK텔레콤 '킬러 콘텐츠' 개발 진두지휘...전진수 미디어랩장

### 지난해 '살아있는 동화' '옥수수 소셜 VR' 서비스 시장 호평 “글로벌 기업 승자독식 구조 대항하려면 공격적 자세 취해야”

“5G 상용화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이 고객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난만 뜨면 쏟아지는 관련 정보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인공지능(AI)과 함께 매년 앞자리를 다투는 신성장 사업 AR·VR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국내 1위 통신사업자 SK텔레콤의 AR·VR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전진수 미디어랩장(상무)은 지난해 두 개의 킬러 콘텐츠를 앞세워 고객과 AR·VR 서비스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전 랩장은 SK텔레콤의 AR·VR 연구의 산증인이다. 삼성전자에서 카메라폰, DMB폰 등 세계 최초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그는 2011년 말 SK텔레콤 종합기술원(현 ICT기술센터)에 등지를 튼 후 본격적으로 AR·VR·인공지능(AI) 개발을 시작했다. 종합기술원 내에 AI 개발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2012년부터는 AR와 VR 연구에 매진했다. 전 랩장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AR·VR

서비스인 '살아있는 동화'와 '옥수수 소셜 VR' 서비스를 시작했다. 폭발적인 시장 반응과 업계 호평으로 대내외적인 성과를 올렸다. '살아있는 동화'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에서 개발한 가장 우수한 콘텐츠로 선정됐다.

전 랩장은 “키즈 시장을 공략하기로 정하고 20여 명의 부서원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AR 콘텐츠로 내 아이가 동화책 주인공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SK브로드밴드 서비스 개발 기획팀과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살아있는 동화'가 탄생했다”고 회상했다.

반신반의했던 키즈 콘텐츠였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뽀통령으로 통하는 뽀로로에 이어 키즈 콘텐츠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전 랩장은 “현재 Btv 키즈 콘텐츠 내에서 2일 기준 월간 사용자 점유율이 24.8%를 기록했고, 고객만족도가 높아 월간 사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이내에 살아있는 동화 2.0 버전을 준비 중이다. 전 랩장



전진수 SK텔레콤 종합기술원 미디어랩장이 서울 을지로 SK타워에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5G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은 “종전에는 동화책 주인공이 1명이었다면 살아있는 동화 2.0 버전에서는 엄마, 아빠, 형 등 여러 명이 나올 수 있게 AR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소셜 기능을 첨가해 직접 만든 동화콘텐츠를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서 ‘미디어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옥수수 소셜 VR

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다. 그는 “VR기기를 쓰고 가상 현실에서 동시에 8명이 접속해 스포츠·영화·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를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아직 그래픽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5G가 상용화로 인한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옥수수 소셜 VR를 통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등장하는 가상현실 세계 오아시스처럼 추후 SK텔레콤의 VR 세상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아직 시장 초창기인 AR·VR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초공정 마인드’를 강조했다.

전 랩장은 “위기를 스스로 끌어안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글로벌 ICT 기업들의 힘이 커지고 있는 승자독식 구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개발 초기 실패와 시행착오가 축적되는 시간을 거쳐 결국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문성과 실력을 키워 양질의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당당하게 나의 일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일에 맞춰서 성과를 내고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이렇게 선순환이 됐을 때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법근 기자 nova@

## 성윤모 산업장관 12일 UAE 방문 취임 후 처음...에너지·산업협력 논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12일 UAE를 찾아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주요 장관들과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국내 원전업체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수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비계약 수주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참여해 미국, 영국 업체 등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최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선임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처장은 1982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했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장효진 기자 js62@

## 석유화학협회장에 문동준 대표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에 문동준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겸 대표이사 선임됐다.



6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 차기 협회장에 문 대표를 선임했다. 이전 협회장인 허수영 회장(롯데그룹 화학BU부회장)은 임기가 2019년 3월까지였으나, 2018년 말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차기 협회장으로 문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문 회장은 1979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 재무·기획·영업에 담당했다. 2010년 금호피앤비화학 임원을 거쳐,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취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한국석유화학산업에 몸담아온 산증인이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1년 2월 정기총회까지다. 변효선 기자 hsbun@

## 계시판

### 한국민사법학회장 김대정 중앙대 교수

한국민사법학회는 1일 김대정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학회장 임기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1년간이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7년 6월 1일 창립됐다.



### 서영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취임

서영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제28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1989년 창립된 분자세포생물학회는 우리나라 생명과학 분야 최대 학회로 현재 1만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4일 용인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019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환영식에 참석한 중학생, 대학생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노희찬 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등 경영진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24일까지 5개 대학서 진행

삼성전자는 교육 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삼성드림클래스'의 올해 겨울캠프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읍·면·도서 지역 767개 중학교에서 모집한 학생 1000여 명과 군 부사관, 소방관, 해양경찰, 국가유공자 자녀 466명 등 모두 1495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5개 대학에서 진행된다.

'삼성드림클래스'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주중·주말 교실을 운영하고, 도서

벽지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3주간 합숙 교육 형태로 방학캠프를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교육부와 함께 겨울캠프에 참가할 중학생을 모집했다. 이 중에는 군 부사관·소방관·해양경찰·국가유공자 자녀 466명도 포함됐다.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 멘토들과 합숙하며, 총 150시간 동안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송영록 기자 syr@

- 인사
  - ◆국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운경 △특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상진
  - ◆기획재정부 <국장급> △경제구조개혁국장 우병렬 △대외경제국장 박충근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 김운상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정홍근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김현주
  - ◆특허청 <국장급 전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목성호 △특허심사기획국장 이현구
  - ◆농촌진흥청 <도원장 승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도원국장 승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춘석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 장 박인희
  -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전보> △중로중구 천득출 △성북강북 경민수 △도봉노원 최영환 △용산 채희옥 △동대문중랑 안경숙 △고양일산 이병원 △파주 유승삼 △의정부 이혜선 △서초 박리연 △구로금천 박재구 △강릉 조선희 △춘천 박명철 △원주 서홍길 △북수원 정지에 △화성오산 김신철 △안양과천 김승환 △안산 정대성 △경기광주 유문상 △광명 이인태 △서인천 강동백 △남인천 빈경민 △부평계양 조혜연 △북대전 조경태 △육천 남우근 △공주 부여 신동권 △아산 장일동 △보령 최성모 △순천 조종문 △남원순창 김영균 △제주 김성배 △서귀포 박훈갑 △경산청도 이양구 △안동 구영주 △영주봉화 권승환 △김천성주 정근식 △남부산 송규태 △동부산 강병창 △김해밀양 손정락 △진주 김달중
- △사천남해 이상선 △거창 이종희
  - ◆한국석유공사 <처장 및 지사장> △재무처장 우진하 △인재경영처장 한일봉 △기술센터장 권오광 △자산관리처장 이성기 △미주유럽사업처장 김병진 △아시아사업처장 박진근 △국내사업처장 심재현 △거제지사장 이주현 △용인지사장 이종진 △서산지사장 백종연
  - ◆코스콤 <전무>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욱 <상무> △금융사업본부장 정동운 <본부장> △IT인프라본부장 권형우
  - ◆은행연합회 <전보> △기획조사부장 박창욱 △여신제도부장 이인근 △수신제도부장 유문선 △비서실장 박진우 △홍보실장 박영상 △감사실장 지순규
  - ◆IBK투자증권 <승진> △상무 △준법감시인 김재교 △법인주식본부장 유정섭 △상무부 △법인영업2팀장 허경량 △구조화
- 금융본부장 최미혜 △종합금융1팀장 박용우 △M&A/PE본부장 장재성 △이사 △IBK WM센터 목동 센터장 허용권 △강북영업본부장 겸 강북센터장 손관 △강북센터 조한영 △서초센터 이준호 △대구센터 박진용 △IPO팀장 전기환 △준법지원부장 겸 컴플라이언스팀장 이재덕 <보임> △상무 △준법감시인 김재교 △법인주식본부장 유정섭 △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신호철 △고객자산운용본부장 김현섭 △구조화금융본부장 최미혜 △부동산금융본부장 우규택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백동흙 △영업본부장 △본점영업본부장 겸 영업부장 이창섭 △강북영업본부장 겸 강북센터장 손관 △경동영업본부장 겸 본당센터장 심상은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겸 대구센터장 전영석 △부산영업본부장 겸 부산서면센터장 겸 IBK WM센터 창원 센터장 김성범

## 부음 이견희 회장 암 치료 주도, 흉완기 前 미국암학회장

폐암과 두경부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한국인 처음으로 미국암학회 회장을 지낸 흉완기 박사가 2일(미국 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76세.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다.



고인은 1942년 경기도 청평에서 태어나 196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의무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했다.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간 흉 박사는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에서 종양학 분야 전임의 과정을 이수했다. 흉 박사는 1984년부터 2014년에 걸친 30년 동안 세계 최대 암 치료기관인 미국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두경부·폐암 파트를 이끌면서 석학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2000년대에는 폐암 진단을 받은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과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등의 치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정희 씨 별세, 윤경호(매일경제 논설위원)·선영(전 한양대 교육대학원 객원 교수)·영호·광호 씨 모친상 = 5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본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 02-2276-7695

▲오병환 씨 별세, 오세훈(전 서울시)·세현(SK텔레콤 전무) 씨 부친상, 송현욱(세종대 교수) 씨 시부상, 표현봉(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씨 장인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9일 오전 7시, 02-3010-2000

▲홍승표 씨 별세, 홍성국(운수업)·선희·성철(동아이지에듀 대표) 씨 부친상, 오수역(한국GM 과장) 씨 장인상, 이유진(KBS 스포츠제작부 기자) 씨 시부상 = 5일, 춘천시 강원효장례문화원 202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033-261-4441

임병학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블록체인 기술, 올해는 상용화될까

지난 3일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 집중형 경제시스템의 대안으로 고안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점차 높아져 이제는 누구나 아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2만 달러가 넘어갔지만 불과 1년 만에 4000달러 밑으로 폭락한 상황이다.

사실 2018년은 암호화폐로 시작한 관심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에 비해 규제를 덜 받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겨지면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결제에 주로 이용되었던 비트코인처럼 P2P금융, 해외송금 등 금융분야 적용을 위한 블록체인 개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보안 및 인증 분야는 물론 제조업, 유통, 회계, 마케팅, 스포츠, 여행 등 대부분의 사업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통관, 선거, 축산물 이력 관리, 부동산 거래 등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더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블록체인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직까지 ICO가 진행된 프로젝트 가운데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 ICO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거나 아직 정비되지 못한 이유로 있겠지만 이 역시 글로벌 성공 사례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상용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볼 가능성이 높다. IBM을 비롯하여 오라클, 아마존, 구글, MS 등 글로벌 IT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카카오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선보였고 네이버는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 체인(LINK Chain)'과 암호화폐 '링크(LINK)'를 개발하여 향후 서비스 지분 및 보상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를 통해 대량 거래 처리와 스마트 계약 등을 구현하였고 LG CNS는 디지털 인증, 커뮤니티 화폐, 공급망 관리 등이 가능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출시하였다.

이러한 대기업 참여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자금조달 측면이다. 작년 1분기를 정점으로 ICO에 대한 의구심 증가로 ICO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의 대안으로 토큰 발행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권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떠오르고 있다. ICO와 달리 토큰 발생사 자산을 소유하고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경영권의 일부를 갖는다. 두 번째는 규제 측면이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에서 ICO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일본이 의장국이 되는 이번 G20회의에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 밖에도 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와 가격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코인의 부상도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제학회인 전미경제학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다. 전년도에는 볼 수 없었던 학술 논문의 발표는 물론, 관련 패널 토의가 두 번이나 진행됐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학술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제학회인 전미경제학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다. 전년도에는 볼 수 없었던 학술 논문의 발표는 물론, 관련 패널 토의가 두 번이나 진행됐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필립 C. 맥그로 '인생은 수리가 됩니다'

새해 다짐, '인생결정목록'을 작성하라

새해를 열면서 인생전략가로부터 한 수 배워보면 어떨까? 미국의 인생전략가이자 법 심리학자인 필립 C. 맥그로가 집필한 책 '인생은 수리가 됩니다' (정림출판)는 인생의 법칙을 정리한 책이다. 그는 정신과 의사 출신으로 '닥터 필 쇼'라는 TV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다. 이 책은 그가 인생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의 해법 찾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인생은 수리가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하고, 재정비도 가능하다. 인생법칙을 배워 인생 전략을 세울 굳은 의지와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말이다.'

책의 전반부에는 인생법칙 10가지가 소개되고, 후반부에는 '인생 수리 매뉴얼'이 3개 장에 걸쳐 소개된다. 말미에는 이 책이 다른 '인생을 수리해 주는 과제목록 18'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인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은 '현실 부정'

이다. 어떤 사람은 아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황에 맞서기 싫어 애써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현실 부정이란 질병을 앓는다. 책을 펼치면 저자가 한 첫 번째 조언인 "우선 현실을 인정해야 뭐든 된다"가 나온다. 일찍이 마크 트웨인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 고민할 때면 현실을 외면하는 버릇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인생법칙 10가지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면 경쟁우위를 갖는다 △사람은 보상이 따르는 행동만을 한다 △결심하면 즉시 실행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택 가능하다 △인생은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내 행동이 나에게 어떤 타인의 반응을 결정한다 △상대방을 용서하면 내가 회복한다 △구체적으로 원해야만 얻을 수 있다 등이다.

저자는 각 법칙에 어울리는 흥미 있는 사례를 들고 쉬운 문장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사는 일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데 어떻게 인생전략이 가능하냐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전략적인 삶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를 둔다.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인생전략을 모른다는 것은 글을 못 읽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책에서 자신이 그동안 만났던 고객들에게 스스로 인생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한다. 그방법대로 이 책을 썼음을 밝히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지 않은 것이라면 일단은 거부하고 본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해 오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험하려는 작은 걸음에서부터 모든 기회가 생긴다. 가까이 잘 못된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일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이런 간단한 법칙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더욱더 꼬이게 된다. 문제를 알면서

도, 해법을 알면서도 미적거리는 사람에게 저자는 "시간은 무자비하다. 시간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당신이 목적 달성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한번 허비한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인생 결정'이란 용어를 들어보았는가. "살면서 절대로 타인의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결정 같은 것이 인생 결정의 사례에 속한다. 인생 결정이 없다면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사안에 대해 자주 고민하거나 멈추어 서야 한다. 저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두고 '인생 결정 목록'을 작성하라고 권한다. 새해를 열면서 백지 위에 저자의 조언대로 '인생 결정 목록'을 번호를 매겨 가면서 문장으로 나열 하듯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실용서의 값어치가 빛나는 경우는 작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자신을 돌아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책이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송재 서재필(松齋 徐載弼) 명언 "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 만일 나누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 조선이 없으면 남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북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근일 죽을 일을 할 묘리(까닭)가 있겠습니까. 살 도리들을 하시오." 독립기념관 내 그의 어록 비에 새겨진 말이다. 갑신정변에 가담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미국으로 망명해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고, 조국으로 돌아와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창간·창립하고 독립문을 건립한 언론인이자 개화운동가·독립운동가. 오늘은 그가 서거한 날. 1866~1951.

☆ 고사성어 / 후생가외(後生可畏) 젊은 후배들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 곧 젊은 후배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배워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히 두려운다는 말. 출전은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 공자 말씀. "젊은 후배들은 두려워할 만하다. 장래에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따르지 못하리라고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40세, 50세가 되어도 세상에 이름이 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바 없느니라." 공자가 제자 중 학문과 덕행이 가장 뛰어난 안회(顔回)를 두고 한 말이다.

☆ 시사상식 / 골드락스 가격(goldilocks pricing) 가전제품이나 내구재 등을 판매할 때 고가, 중간가, 저가의 상품을 함께 진열함으로써 소비자가 중간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용어로, '중간가 책정'이라는 의미다. 사람의 본능이 극단적 선택보다는 평균적인 값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이용하여 중간가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한 판매 방법이다.

☆ 유머 / 최고 거짓말 1등 회사가 사장 지시로 '유머 있는 최고 거짓말' 현상 공모전을 열었다. 신입사원의 1등작. '이 회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서지희 사회경제부/jhsseo@

2019 부동산, '욕망의 똥통'에서 벗어나길

말을 곱씹어 보면 부동산의 '현실(가격)'이 아닌 '문화(심리)'를 지적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이에서 아파트 브랜드로 서열화하는 문화가 결국 어른 사이에서 부동산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문화가 되는 현상 말이다. 친구들과 다른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은 '부모의 선택'을 원망할 수도, 성공의 잣대를 대는 기준에는 '나의 선택'에 대한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는 씩씩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서울에 20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절대 아니죠." 전문가는

이 말을 끝으로 대화를 더는 이어가지 않았다. 기자가 "부동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으레 질문이 돌아온다. "좋은 지역을 찍어 주세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그러나 질문하는 이들도 기자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사실 자신의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눈빛을 감추지는 못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오른다, 그대로다, 떨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한 시장 전문가의 표현대로 다른 이와 비교만 하다 '욕망의 똥통'에서 허우적거릴 것인지 아니면 소신 있는 선택을 추구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더 음습해지고, 욕망이 더 분출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당위성과 집값 안정을 얘기하지만 정작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하고 있죠."

2019년을 맞이하기 며칠 전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을 '욕망의 똥통'이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겉으로 '안정'을 얘기하지만 저마다 집값을 생각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이고, 부동산 시장의 일부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욕망을 무게 재고, 서열화하고, 매시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잘 못 돌아가는 것 같다. 2019년 부동산 키워드는 '양극화에 대한 분노', '선택에 대한 분노'가 될 수 있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staff information: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대표전화, 팩스,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 3월 회계전쟁, 직격탄 맞는 中企

회계란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와 같다. 기업을 매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으로 평가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결정된다.

## 데스크칼럼

이진우

자본시장2부장



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가 많지 않다. 그냥 예전처럼 회계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회계 기준을 바꿔서 적용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회계법인과 싸울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다.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잘 돌아가는 말쑥한 기업이 죽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은 기업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한 회계 기준은 기업과 자본시장, 더 나아가 공정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조원기라거나 달랐다.

요즘 기업과 회계법인 간 마찰이 특히 잦아진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공정함'의 문제로 연결된다. 12월 결산법인인 3월 중순께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제 석달 정도 남은 셈인데,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다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과정이야 어찌 됐든 회계법인의 잘못으로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니 회계법인이 보수적인 판단과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을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부터 진짜 피 말리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기업들이 회계감사에서 예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난해 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파문 때문이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논란 끝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냈다.

기업과 회계법인이 주로 부딪히는 부분은 수익 인식 부분에서다. 예컨대 공사 기간이 긴 건설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해년도 이익이 크게 변동된다. 결정적으로 2011년부터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 삼성바이오이지만,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도 중징계를 받았다. 회계사들은 줄줄이 웃을 뻔했다. 그 결과 요즘 회계법인은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기업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회계에서는 특정 회사 지분을 50% 이상을 취득하면 지배력을 획득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FRS상에서는 다른 실질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면 명목상의 지분이 50%가 안 되더라도 지배력을 획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IFRS상에서는 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데, 움츠러든 회계법인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 삼성바이오 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다.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처리해야 하는지, 종속회사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5

이럴 때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혼란이 기업과 회계법인의 '판단력'을 존중하는 IFRS의 특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금융당국은 중재에 나서야 한다.

우선 적용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해연도에 갑자기 바뀐 기준에 대해선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줘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회계법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계도에 나서서 것도 필요해 보인다.

회계법인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있을 금감원 감리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회계법인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공정한 회계 기준은 근본적으로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것이지, 다른 주체를 죽여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때는 금융당국이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가이드선'을 줘야 한다.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woo@

## 사설

#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로 혼란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해 경기와 고용 상황을 감안한 인상 구간을 제시토록 하고, 결정위는 노사 단체와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돼 가이드라인 내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는 것은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노사 자율성을 침해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임금 인상폭을 정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로는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결과에 대한 논란과 부작용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노사가 매년 현격한 입장 차이로 대립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 주준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온 까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인상됨으로써 경제와 민생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노동계의 반대도 그렇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도 결국 땀질처방에 그쳐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은 노사 어느 한쪽의 요구에만 치우치지 않은 균형점을 찾아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에 정합(整合)해야 지속 가능하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협상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런 개편으로 임금 결정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벌써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따른 갈등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을 미리 설정하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별 격차가 큰 생산성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아 임금 지불 여건이 취약한 영세산업의 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그 결과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임금 인상률을 따로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다.

그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법에 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의 임금 산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 박은평의 개평(概評)



정치경제부 차장

# 데드크로스에 선 소득주도성장

이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이지만 현장 사정을 모르는 얘기다.

다. 이렇다 보니 일부 대기업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할 처지가 됐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임금지불 능력도 떨어지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되면서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 72%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불안 요인으로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임금지불능력) 감소(23.5%)를 꼽았다.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늘리려는 커녕 종전에 있는 직원조차 내보내야 할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도 인상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한계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사업자와 알바 모두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임금 체계 개편 접점을 찾지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유예기간 6개월을 제시한 게 전부다. 사실상 손을 놓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체계를 들여다보면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수당 등이 많은 복잡한 기형적인 구조다. 기본급이 높아지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올라 그동안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 등을 늘려 왔

사회가 감당할 체력이 안 되는데 지키지 못할 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감당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계속된다면 이들을 살펴보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늦었지만 주휴수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해 봐야 한다. 또 노사가 임금 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산업현장의 혼란도 줄여야 할 것이다.

pepe@



# 양두구육(羊頭狗肉) 삼인성호(三人成虎)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현 정부가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 개고기를 팔)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삼인성호(三人成虎: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 이득게 됨)'라고 맞섰다.

지만 여러 사람이 번갈아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결국 믿게 될 것"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전자는 거짓 행위를 지적한 말이고, 후자는 헛소문의 부정적 위력을 설파한 말이다.

양두구육은 제나라 임금 영공(靈公)이 특별히 남자 옷을 입은 여인을 좋아하여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하게 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남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안자(晏子)가 '문에는 소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상황이라고 꼬집음으로서 생겨난 말인데 '우두마육(牛頭馬肉: 소머리에 말고기)'이 후에 '양두구육'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사실에 입각하여 제대로 지적했음에도 그 지적을 삼인성호로 간주하려 한다면 그도 나쁜 일이고, 가짜 뉴스나 거짓 증언을 들어 양두구육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일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삼인성호인지 양두구육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려 하지 않고 어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다. 법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삼인성호'는 전국책 위지(魏志)에 나오는 방충(龐參)의 말로서 "장마당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 번 말하면 믿지 않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국민들이 진실을 파악하여 바른 판단을 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편을 들려 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거짓과 억지로 진실과 논리를 덮으려 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망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KT고객이라면  
 해외에서도  
 국내 통화료로  
 부담없이  
 통화하세요

**로밍ON**

별도 신청 없이 미국, 중국, 일본, 괌,  
 러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사이판, 필리핀, 마카오,  
 말레이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 뉴질랜드 총 21개국에서  
 음성통화 1초 1.98원  
 10분을 써도 1,188원  
 Thank you

PEOPLE. TECHNOLOGY.



음성로밍 초당 1.98원 적용(부가세포함), 자세한 사항은 kt.com 홈페이지 참조